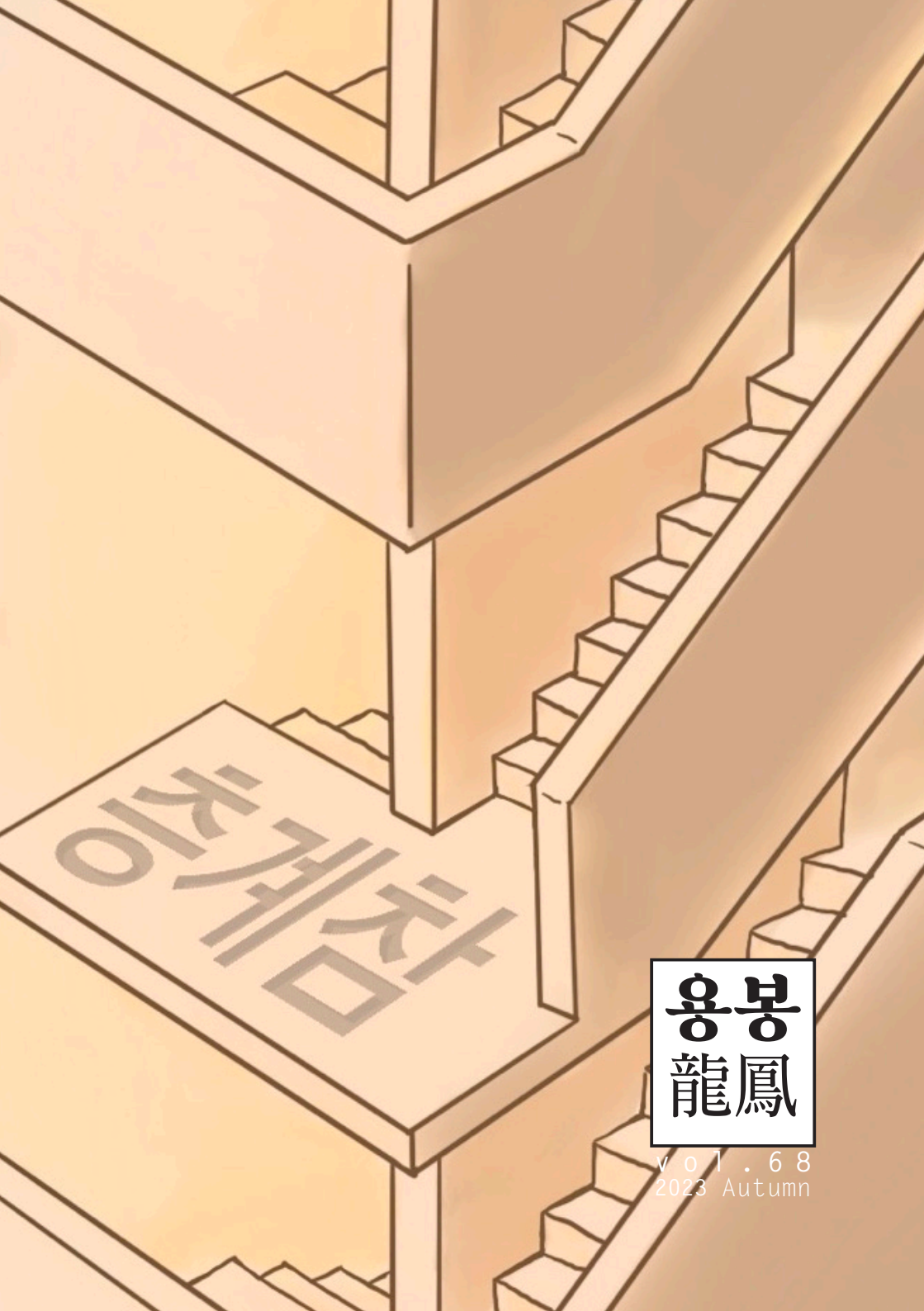




이것계참

용봉
龍鳳

Vol. 68
2023 Autumn



전국민 모두
장기투자
분산투자 하시라고

미래에셋증권
미국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

**시원하게
ZERO!**

● [전국민] 미국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 완전무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투자상담센터 1644-9300] ■ 23.07.01~23.12.31까지 미국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에 대해서만 무료(매도시에는 수수료 발생)이며, 기간 종료 후 기존 수수료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미국주식 온라인 수수료 0.25%, 오프라인 0.5%, 미국주식 매도시 제비용 0.0008% 별도발생 ■ 본 이벤트는 개인 고객에게만 해당되며 법인 고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이벤트는 당사 사정 또는 금융당국의 지도 및 권고에 따라 조기종료가 가능하며 조기 종료일 이전까지는 온라인 미국 주식 매수 수수료 면제됩니다 ■ 미래에셋증권 온라인 매매(MTS, HTS)를 활용한 미국주식 매수 시에만 해당 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주식]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주식]은 자산가격, 환율변동 등에 따른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456호(2023.07.06~2023.12.31)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HANA 하나병원
GENERAL HOSPITAL



심장 · 뇌혈관센터 확장 신축,
400여대 주차시설 완비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4회 연속
최우수(1등급)기관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관중재클리닉 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 지정
재관류 치료 뇌졸중센터 인증

대표번호 : 043-230-6114
건강증진센터 : 043-230-6222

영동영

수습

모집



영동영 집 위원회
전남대학교

모집인원

- 수습위원 0명

모집대상

- 글쓰기 및 출판에 관심 있는 분
- 글로벌 이슈를 알고 싶은 분
- 한 학기 이상 활동이 가능한 전남대생
- 국제시민들과 교류하고 싶은 분

모집절차

- [1차] 서류심사 (지원서 사전제출/QR코드 참조)
- [2차] 면접 (개별 연락)
- [3차] 최종 합격 발표 (개별 연락)

문의사항

☎ 010.9440.7831 (문자)
@ yb_press (DM)

모집기한

- ~ 9/30 (토)

활동내용

- OT (9/13)
- 오픈 모임 (9/18)
- 미얀마 유학생 토크 콘서트
- NO JAPAN 넘어 한일관계 바라보기
- 신문 읽기 모임
- 환경 생태 세미나
- 인터뷰, 간담회, 심층보도
- 69호 교지 제작

영부

Contents

008 발간사

국제

012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026 히잡을 불태우는 여성들
- 재한 이란 여성 토크콘서트

여성

042 한부모 이주여성, '한부모'와 '다문화'라는
이중 정체성으로 현실에 맞서다

054 장자 철학의 사이보그적 독해
- 페미니즘과 장애학 관점의 과학-기술 담론을 중심으로

064 전쟁은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읽고

환경생태

068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과장과 축소 없이 진실을 보자

교육

075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과 문제점 - 공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정부

084 학생에게는 '스승'이 필요하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침해,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일까

091 취재파일 Y

102 「나무의 속삭임」

104 독자 이벤트

108 편집 후기

편집장 형호

편집위원 솔 회성

수습위원 미르 수빈 수빈 정하 시윤

지도교수 사회학과 김명수

발행인 형호

발행처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77,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408호

이 메 일 jnuybpress@google.com

S N S @yb_press (인스타그램)

발행일 2023.09.01.

디자인 경욱 미르 형호

평평하고 널찍한 공간이 나옵니다.

계단과 계단 사이

오르다 보면

숨 가쁘게

한칸 한칸

계단을

이번 호의 제목은 "층계참"입니다. 층계참은 계단의 방향을 바꾸거나 피난과 휴식을 목적으로 설계된 구조물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맥주 한 캔 홀짝이며 수다를 떨기도 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침묵에 잠기기도 하고, 옛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하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방금 올라온 계단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앞으로 올라갈 계단을 올려다보기도 합니다.

68호 교지는 층계참에 서서 잠깐 고민을 나누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번 호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계단을 올라왔고 앞으로 어떤 계단을 올라갈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오르려 합니다.

첫 글인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는 고조되는 양안 관계의 위기 속에서 한국이 올라갈 계단은 어디일지 고민합니다. 대만이 마주한 긴박한 상황을 개관하고, 이 상황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다음 글인 「히잡을 불태우는 여성들」에서는 억압적인 이란의 현실을 돌아보고, 히잡 시위의 도화선이 된 한 여성의 죽음을 꼼꼼이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주최한 토크콘서트 내용을 바탕으로 이란 여성의 목소리를 전하고, 국제 연대를 향한 계단을 찾고자 합니다.

「한부모이주여성, '한부모'와 '다문화'라는 이중 정체성으로 현실에 맞서다」는 그간 우리 사회가 조명하지 않은, 한부모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논의합니다. 또한 이들이 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단을 모색합니다.

기고 글 「장자 철학의 사이보그적 독해」는 기존의 과학기술관을 비판하는 학자들과 장자의 사상을 연결 짓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페미니즘과 장애학의 시선에서 과학-기술을 재설계하는 계단을 상상합니다.

환경생태 파트의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과장과 축소 없이 진실을 보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입장을 개괄합니다. 또한 국제적 협력이 절실한 사안을 두고 네거티브 정치로 얼룩진 현 상황을 비판하며, 문제해결에 앞서 우리는 어느 계단을 선택해야 할지 제시합니다.

교육 파트에는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과 문제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하다」를 실었습니다. 이 두 글은 연일 화제가 된 '수능 킬러문항 배제'와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의 배경을 분석하고, 한국 교육의 현 위치를 밝히려 합니다.

이외에도 독후감 「전쟁은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디카시 「달관」, 취재록 「취재파일 Y」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수록했습니다.

이제 잠시 계단 오르기를 멈추고 지금까지 올라온 계단을 되돌아보길 제안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계단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힘들게 올라온 계단 저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독자 여러분과 답을 함께 내고 싶습니다.

- 비 새는 1생 3~4층 층계참에서,
편집장 형호

용봉 Autumn 68호 『층계참』 독자모임

필진과 다른 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

교지를 읽고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싶다면?

용봉교지 독자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을 68호 <층계참>을 읽은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이번 호 교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독자모임 후 뒤풀이도 함께 해요~

일시 : 2023년 11월 6일(월) 오후 7시

장소 : 제1학생회관 408호 용봉교지편집실

신청/문의 : 인스타그램DM @yb_press

이메일 jnuybpress@gmail.com

문자 010-9440-7831 (편집위원)

12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26 허잡을 불태우는 여성들 - 재한 이란 여성 토크콘서트



국제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편집위원 솔(dlthf_@naver.com)



▲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륙훈련 장면. [타이완뉴스]

떠오르는 대만해협의 위기

희뿌연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슬픈 예감이 든다. '동아시아의 화약고', 대만 이야기다. 이미 대만 영해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함이 보이고, 대대적인 중국 침공 대비 훈련과 실탄사격 훈련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미국이 최초로 대만에 4,400억 원어치 무기를 지원하기도 했다. 벌써 대만해협에서 포성이 들려오는 듯하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전례 없는 3연임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조국 통일을 추진할 것임을 선언했다. 대만 내에서도 양안 협상의 토

*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이고, 합법적 정부 또한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라는 원칙. 이후 '92공식'을 통해 중국과 대만이 각각 원칙을 해석하는 방향이 갈리게 된다.

대가 되는 92공식(九二共識)**이 흔들리고, 독립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대만해협에서의 무력 충돌, 엄밀하게 말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해협 위기의 배경: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 일부분이다. 조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은 타이완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 인민이 마땅히 져야 할 신성한 책임이다."

중국 헌법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1949년,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했다. 그 후 국민당은 타이완섬에 자리를 잡고 대만을 세웠으며,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을 건설했다. 대만을 중국 내 '하나의 성(省)'으로 간주하며 대만 통일을 완성하겠다는 꿈은 건국 이래 중국공산당과 인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이 숙원은 핵심적인 정체성이자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원칙으로 거듭났다. 이제 중국은 대만에 영토 문제가 아닌 '통일 문제'로 접근한다. 이미 대만해협에서는 중국이 군함과 군용기를 대동한 무력시위를 일으키고 있다. 이웃 나라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갈등은 한반도에 어떤 파급을 불러올까.

중국과 대만, 그 충돌 가능성

대만해협의 위기가 한반도에 무엇을 암시하는가. 그리고 한국은 어떤 패를 내밀 것인가. 여기에는 '실제로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까?'라는 물음이 선행한다. 그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 양안 관계 전문가 64명 중 63%가 '중국이 10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필립 데이비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2021년 초 미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 양안의 충돌을 막기 위해 1992년 11월 대만과 중국이 합의한 원칙.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대만과 중국 본토 중에 누가 '진짜 중국'인지는 각자 알아서 생각하자는 내용.

*** 1949년 중국에서 항일전쟁이 끝난 후 중국 재건을 둘러싸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벌어진 내전.

2027년 이내로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할 것을 중국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지금으로부터 4년이 채 남지 않은 2027년은 중국의 대만 침공 ‘디데이’로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2027년은 특별한 시점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자, 시 주석의 4연임을 결정할 21차 당 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4연임을 앞두고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 대만 침공을 결단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한편 미 하원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장은 올해 6월 일본의 경제매체 《닛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2027년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갤러거 위원장은 “대만해협이 이미 극도로 위험한 시기에 진입했다”며 “2027년이 중국과 대만 간의 무력 충돌이 ‘시작되는’ 해가 아니라, ‘끝나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그 시발점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내일 당장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세는 불안하다.

중국에서도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년 10월 제20회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두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중국공산당의 싱크탱크인 중국양안아카데미 또한 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이 역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해당 싱크탱크는 양안 간의 긴장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대만해협의 무력 충돌 위험 지수가 -10부터 10까지 범위 내에서 7을 넘어, 8에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가 1949년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직후의 위험 지수인 6.70보다 높은 수치다. 지수가 7을 넘으면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 그리고 엇갈린 미래

바다 건너 섬나라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전쟁에, 왜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연루를 걱정할까? 대만과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

쟁 당시 상황은 한반도와 대만해협 사이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준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자, 마오쩌둥은 대만해협을 건너가 내전을 종식하고자 했다. 그는 장제스의 대만을 수복해 천하통일을 완성할 계획이었다. 중공군은 하이난섬을 비롯해 주변 섬들을 하나씩 뺏어 타이완섬을 조여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쟁은 정작 한반도에서 터졌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미국 주도의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 통일을 감행하자, 중국도 대만에서 한반도로 시선을 돌려 ‘혈맹’ 북한을 돕기 위해 전면적인 참전을 감행했다. 대만과 한반도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미국을 상대해야 한다면,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결국 바람 앞의 등불 같던 대만의 운명을 한국전쟁이 바꿔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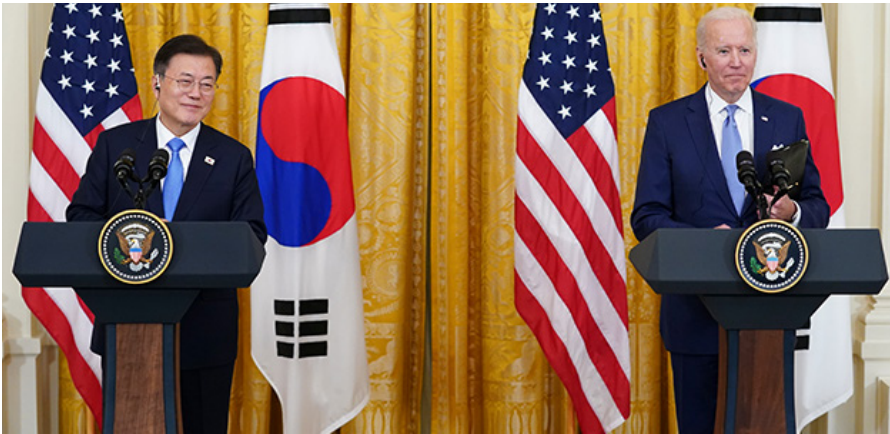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에 미군을 파병하는 동시에, 미 해군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배치했다. 한국전쟁을 틈탄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충돌이 대만해협의 위기로 확대된 것이다. 미래의 상황은 1950년대 초반과는 반대로 진행될 수 있다. 한국전쟁이 대만해협의 위기로 전이되었던 것과 달리, 미래에 대만해협의 파고가 높아지면 필연적으로 한반도에도 여파가 닥칠 것이다. 우리는 대만 앞에서 결코 강 건너 불구경, 아니, ‘바다 건너 불구경’할 수 없다.

대만침공과 한반도의 미래

① 외교·안보에 대한 위협: ‘끌려가는 객체’

강대국의 힘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한 중간국의 비극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유라시아 반대편 미·중의 힘이 충돌하는 위치에 한국이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 관계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언제나 곤란하다. “굿 렉(Good

* 애치슨 라인에 한반도와 대만이 빠져있다는 사실은, 두 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비쳤다. 이것은 이후 북한과 중국으로 하여금 각각 남한과 대만 영토를 병합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 기자회견 당시 모습. [KBS 뉴스]

luck; 행운을 빕니다.)”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 관련 질문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다. 이 장면은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난처한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은 그간 고압적인 자세로 한국에게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해 왔고,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중립은 사실상 중국 편을 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만에서 포성이 울리면 군사·외교·안보·경제 측면에서 대외의존도, 특히 미·중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거센 파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운명에 처한다.

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또한 문제가 된다. 미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 미군 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전개하는 것을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대만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주한 미군 차출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주한 미군이 미국 군사력의 일부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영토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한 미군 차출은 중국-대만 혹은 미국-중국 충돌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중국에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

*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하여 1953년 10월 미국과 맺은 군사 동맹. 미국은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 원조한다는 내용.

그러나 생존의 공간이 실질적으로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곧바로 한국이 주한 미군 철수나 차출 반대를 외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한 미군 문제는 동맹국들의 신뢰와 직결된 데다, 이웃 나라 대만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에게 남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전쟁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한국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안보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대만 침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때 동맹 강화에 따라 주한 미군 차출은 불가피해진다. 이처럼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좋은 싫든 미국과 궤를 함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대만해협 위기를 등한시할 수 없는 까닭이다.

③ 북한의 도발 가능성

북한이 대만 사태를 틈타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미국과 깊게 얽혀 있다면, 북한은 중국의 동맹 사슬에 얽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북한은 눈에 띄게 중국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1961년 중국과 맺은 최초의 동맹 조약인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는 한 국가가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 국가도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중국에게 북한은 군사적으로 미국을 교란하고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다. 전쟁 직전 중국이 주한 미군과 한국군의 손발을 묶기 위해 북한을 사주하여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한 미군이 대만 사태로 한국에서 이탈할 경우, 대북 경계에 공백이 생기고 무력 충돌이 한국으로 확산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대미(對美) 군사원조에 나서면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경고성 발언을 내놓으며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우발적 충돌 위험은 매우 커진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참혹한 재앙이다. 대만해협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붙어 더욱 활발 타오르는 지정학의 악몽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왔는가

THE VIEWS EXPRESSED BY CONTRIBUTORS ARE THEIR OWN AND NOT THE VIEW OF THE HILL

A sad reality of Pelosi's visit: South Korea won't help defend Taiwan

BY DONALD KIRK, OPINION CONTRIBUTOR - 08/09/22 11:30 AM ET



▲ 「펠로시 방문의 슬픈 현실: 대한민국은 대만 방위를 돕지 않으리란 것」 [The hill]

그렇다면 운명을 함께하는 나라, 대만의 위기에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 왔을까. 대만을 향한 한국의 애매한 제스처는 이른바 ‘펠로시 패싱’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연방의회 하원의원이 방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불발되었다. 윤 대통령 측은 펠로시와의 만남을 피한 이유가 휴가 일정과 겹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대중(對中) 관계를 의식한 것이 진짜 이유라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 있다. 그제 사실이 라면 이웃집 눈치 보느라 내 집으로 찾아온 손님을 피한 꼴이 된다. 미 하원 의장을 만나지도 않는 냉대는 전 세계에 한국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다. 미국 정치 전문지 《더 힐》은 「펠로시 방문의 슬픈 현실: 대한민국은 대만 방위를 돕지 않

리란 것」이라는 제호의 사설*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대만해협 위기에 관심이 없음을 보인 것에 받은 충격을 전했다.

같은 해 9월 윤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은 목전의 위협인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며 대만 방어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같은 대답은 사실상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이 되었을 때 한국이 대만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대만 이야기만 나오면 불같이 화를 내는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이다. 여기까지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전략적 모호성’이었다.

하지만 2023년에 접어들며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윤 정부는 기존의 애매한 외교 기조를 급선회해 최근 대만 문제를 두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로이터》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란 넓게는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에, 좁게는 중국의 무력에 의한 통일에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하던 과거 모습과 달리, 대만 문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똑똑히 밝힌 것이다. 나아가 그는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분명한 입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은 변함이 없다.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애꿎은 중국 들쭉시기’로 여기며 철 지난 ‘전략적 모호성’을 외치는 이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균형외교’라는 명분으로 묵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중간한 태도로는 국익은커녕, 한반도를 지킬 수조차 없다는 게 사실이다. 국익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엔 경제모형과 안보, 더 나아가 가치, 이념적 지향,

* A sad reality of Pelosi's visit: South Korea won't help defend Taiwan [The Hill, 22.08.09]

** South Korean President: North Korea remains an imminent threat [CNN, 22.09.25]

민족정체성 등이 전제된다. 우유부단한 태도는 한반도에 닥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할뿐더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동맹국의 신뢰를 동시에 잃게 만든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선택의 순간을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를 옥죄는 밧줄로 돌아온다.

대만위기,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하자

대만해협에서 일어날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은 주한 미군의 참전, 1961년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어진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른 북한의 참전, 한미일 안보 공조에 따른 한국의 연루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우리에게, 대만 위기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꾸준히 대만을 향해 온 한국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공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을 언제까지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대만해협에서 벌어지는 미·중 전쟁에서 한국이 중립을 선언한다고 해서 과연 중립이 성립할까? 그리고 중립을 택했을 때 발생하는 변화는 긍정적일까?

문제는 중립의 경계선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중립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대만해협을 무대로 파국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 앞에서 '중립'은 빛 좋은 개살구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매우 곤란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 자명한 데다, 선택의 기로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이미 그 자체로 '균형'보다는 친중(親中)과 비미(非美)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한쪽 편을 들 수 없다며 입이 닳도록 중립을 외치는 태도가 단순한 희망회로 외에 무엇을 더 말해준단 말인가. 포장지만 다를 뿐, 대책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가 저버렸다는 것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적인 예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펼친 '한반도 운전자론'을 살펴보자.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과 트럼프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북미협상을 중재, 정확히 말하면 중개하는 데에 힘을 들였다. 이에 따라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며 비핵화에 관한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문 정부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

레의 북미 정상회담에 걸쳐 이뤄낸 것은 없다시피 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CVID'와 북한이 수용하는 '핵 동결(nuclear freeze·불완전한 비핵화)'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혀내지 못한 것이다. 결국 한반도 운전자론은 미국의 일방적인 '하노이 노딜(no deal)' 선언으로 파국을 맞았다. 이후 문 정부는 양국의 신뢰를 모두 잃었으며, 우리 외교는 북·미 관계에서 방향과 동력을 잃어 표류하고 있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망상적 구상의 치참한 결과다.

"결단력 없는 군주는 당면한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대부분 중립의 길을 따르다 몰락한다.

(중략) 당신에게 비우호적인 자는 당신의 중립을 요구할 것이고,

당신에게 우호적인 자는 당신에게 무기를 들고 할 것이다."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위와 같이 말했다. 나아가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중립은 적을 만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렇듯 말뿐인 전략적 모호성으로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안정을 지킬 수 없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명확한 입장이나 태도, 대처 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채 양안 전쟁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도-태평양 전쟁으로 확산해 가는 것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 바로 전략적 모호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대만해협에서 현 상태가 유지되는 최상의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적기다.

한반도, '바다 건너 불구경'하지 않으려면?

대만과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녕에 있어 최선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공동성명 등을 통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범지구적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지속해 강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지도부가 대만에 취하려는 군사행동이 가져올 외교적 이익보다 보복에 의한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켜 적대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

그러나 억제력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억제에 의존하는 평화는 언제나 불안하다. 이때 상대적 강대국의 강제로부터 자조(自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격랑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동아시아 평화에 한국 역시 거대한 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제는 한국이 지역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강대국 고래들 사이에서 등 터지는 새우만 자처할 것인가. 가치와 규범의 문제에 관해서 정확한 원칙에 근거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에 부딪친다면 동류 국가와 함께 연대를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동시에 대중(對中) 외교를 동맹 외교의 후처리 정도로 여겨선 안 된다. 중국의 참여와 지원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와 변영이란 한국 외교의 목적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안보나 기술 측면에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곧장 중국과의 절연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즉, 한미 동맹 강화가 곧바로 한중 무역 관계의 소멸이나 한중 단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이 정치적 관계만 따져 손해 보는 선택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 필요가 앞설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일례로, 대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에도 대만의 대중 무역수지는 흑자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미·중을 사이에 두고 곤란한 선택에 부딪칠 것은 분명하나, 이것이 '전부 아니면 전무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중 경쟁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당장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미국에 밀착하더라도, 대중정책과 통합·조율된 좌표, 그리고 방향을 세워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대만해협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서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안보에 관한 전략적 선택은 시민사회의 바로보기가 기반이 될 때 비로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국제관계에 대해 고민할 때, 문제를 둘러싼 허구적 쟁점에서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적'과 '우리'를 나누고 적에 대한 증오를 동원하는 '원한의 정치'를 무엇보다 경계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세우고, 탓하는 것이 본질을 흐리고 정치 위기를 더욱 심화하기 때문이다. 정세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주관주의와 문제를 의지로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의지주의, 그리고 희망 뒤에 숨어 망상 속에만 머무는 낙관주의로는 문제를 제대로 마주할 수 없다. 이를 벗어나 객관적인 눈으로

정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국가 간 체계와, 2차 세계전쟁 이후 확립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 지식계와 시민사회의 명료한 목소리를 통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 전화(戰禍)로부터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행운을 빈다'는 말처럼 미·중 유사시 한국이 연루될 수도 있는 문제를 운에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략적 모호성 뒤에 숨어 대만해협의 위기라는 실제적 문제를 직시하지 않을 때, 마침내 희망은 헛된 꿈으로 전략한다. 더 이상 희망은 전략이 아니므로, 우리도 미국-중국-대만 사이의 아슬아슬한 삼각관계를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20세기 중반부터 군인들은 말했다.

Hope is not a strategy.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Luck is not a factor. (행운은 변수가 아니다.)

Fear is not an option. (두려움은 선택이 아니다.)

- 김윤형, 장영희, 정옥식, 『미중 경쟁과 대만해협 위기』 (갈마바람, 2022)
- 이철, 『이미 시작된 전쟁』 (페이지2박스, 2023)
- 강준영. "중국-대만, 양안 무력 충돌 위기의 함의 -미국의 대만 지원 및 갈등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20.1 (2022): 9-32.
- 김선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응: 한반도 외교안보에 주는 함의." *국제지역연구* 26.4 (2022): 107-126.
- 백승욱.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지정학의 변화. *경제와사회*, (2022): 198-229.
- 조성민. "양안문제: 대만 해협의 무력충돌 가능성과 한국에 미칠 영향." *한반도 포커스* 2023.4 (2023): 56-69.
- 최우선. "대만 군사충돌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IFANS)주요국제문제분석 2021.51 (2022): 1-22.
- 박상현. "미국의 지역적 거대전략과 '대만문제'의 역사적 변화." *경제와 사회* -.133 (2022): 400-441.
-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위기는 데칼코마니 [프레시안, 23.04.2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210934437547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文 "대만해협 안정 중요"...중전문가 "한중 관계에 영향 미칠 수도" [동아, 21.05.23]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523/107071798/1>
- 잇을 만하면 나오는 미국의 "대만 군사 개입" 근거는 있다? 없다? [한국, 22.05.28]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619100004184>
- 美하원 '미중특위' 위원장 "타이완 해협 무력충돌 2027년 전 가능성" [KBS, 23.06.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1735>
- 윤 대통령이 펠로시를 만났어야 할 이유 [중앙, 22.08.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2975#home>

- 대만 해협,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것인가? [프레시안, 21.02.1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1713445395173>
- 윤 대통령 입, 방미 직전 더 위험해졌다...중·러 들쭉시키기 [한겨레, 23.04.2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8977.html
- 대만 위기뎌 한국도 위기...미·중 사이 선택의 순간 온다 [중앙, 22.01.0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502#home>
- 지금도 유효... 마키아벨리의 치명적 유혹 [경향, 15.05.08]
<https://m.khan.co.kr/culture/book/article/201505082122135>
- 중립국 국가전략이 21세기에도 유용할까? [아시아투데이, 23.07.05]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05001632441>
- 한-미 동맹 쫓다가 길 잃은 한반도 평화 [한겨레, 21.03.21]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112.html
- 尹 "대만해협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국제 사회가 반대해야" [서울경제, 23.04.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D40LZM3>
- '中 아킬레스건' 언급한 한국, 미국으로 한걸음 더? [KBS, 21.05.2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2447&ref=A>
- 미 해군정보국 "중국이 대만 합병하면 미국에 재앙적 결과" [연합, 23.07.11]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1077600009?input=1195m>
- "한미상호방위조약"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검색결과 [07.12.01]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79&sitePage=>
- "국공내전" -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5032
- "한미상호방위조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1616>
- <미·중 '전략적 경쟁'과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변화> 강연록 [박상현, 23.07.23]
- Risk of Taiwan Strait conflict 'at all-time high', Beijing-backed think tank says [South China Morning Post, 21.05.21]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134248/risk-taiwan-strait-conflict-all-time-high-beijing-backed-think>
- A sad reality of Pelosi's visit: South Korea won't help defend Taiwan [The Hill, 22.08.09]
<https://thehill.com/opinion/national-security/3592861-a-sad-reality-of-pelosis-visit-south-korea-wont-help-defend-taiwan/>
- South Korean President: North Korea remains an imminent threat [CNN, 22.09.25]
<https://thehill.com/opinion/national-security/3592861-a-sad-reality-of-pelosis-visit-south-korea-wont-help-defend-taiwan/>

히잡을 불태우는 여성들 - 재한 이란 여성 토크콘서트

수습위원 수빈

최근 여성의 목소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 역시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 중이다. 특히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란에서는 ‘히잡 착용’과 관련해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한편 제 권리를 찾기 위해 분투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해 9월 13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지하철을 타던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는 도덕 경찰*에 끌려가 의문사했다. 머리카락이 보이며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9월 17일, 아미니의 죽음에 분노한 이란 여성들은 히잡을 불태우며 “여성, 삶, 자유”를 외쳤다. 이에 이란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체포·구금하고, 시위대를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시위 참여자에게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하고, 크레인에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형을 집행했다. 정부는 고문과 성폭행을 일삼으며 시민들을 억누르려 했다. 하지만 국가폭력에 맞선 여성들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전폭적인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현대적 기획을 위해, 우리 사회에는 생존권·노동권·여성권·평화권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들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란 여성과 그 지지자들은 이란의 억압적인 현실을 바꾸고 권리를 제약하는 굴레를 벗어던지고자 싸움에 나섰다.

우리는 이란 여성들의 처절한 싸움을 보고 다양한 층위의 질문을 던졌다. 이란 여성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 이들이 바꾸려는 여성의 삶과 이란 사회는 무엇일까? 또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을까? 국제 시민으로서 한국인은 이란인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 '도덕 경찰'의 공식 명칭은 '지도 순찰대(guidance patrol)'다. 이란 여성의 히잡 착용을 포함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풍속을 교정할 목적으로, 길거리 불시 심문 및 즉결 체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월 16일 《용봉》이 주최한 ‘재한 이란 여성 토크콘서트’에서는 이란 여성이 처한 현실, 히잡 시위의 배경·의의·목표·전망, 이란 여성과 연대하는 방법, 그리고 한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요청 등을 알아보았다. 이번 글은 토크콘서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했다. 패널로 참석하신 《재한 이란인 네트워크》 박씨마님께서 귀중한 목소리를 내주셨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이란 시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재한 이란인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박씨마입니다. 이란에는 지난 43년 동안 계속해서 크고 작은 시위가 있었어요. 저는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곧바로 한국에 왔어요. 그동안 저는 이란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내 나라를 위해 먼저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09년, 2017년, 2019년에 계속 목소리를 냈어요. 처음에는 주로 이란 대사관 앞에서 대한민국에 와 있던 이란 노동자들과 함께했어요. 현재는 한국에 유학을 온 이란 여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란 여학생들이 한국에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꽤 많더라고요.

Q. 패널께서 계시는 《재한 이란인 네트워크》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직접 참여하신 활동은 무엇인지요?



◀ 지난 9월 28일, 재한 이란인들이 이란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란 정부를 규탄하며 머리카락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민일보]

** 1979년 이슬람교 성직자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입헌군주제인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원리주의로 사실상 신정체제인 이란이슬람공화국을 세운 혁명.

A. 벌써 작년이죠. 9월에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바로 이란 대사관 앞으로 달려갔어요. 당시 200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한국에는 이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한마음으로 모였습시다. 저희는 이란 안에서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섰어요. 주로 강남 테헤란로*나 대학생·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집결했어요. 일단은 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물론 언론에도 많이 노출됐지만, 사안을 모르는 시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 불러주신다면 어디든 가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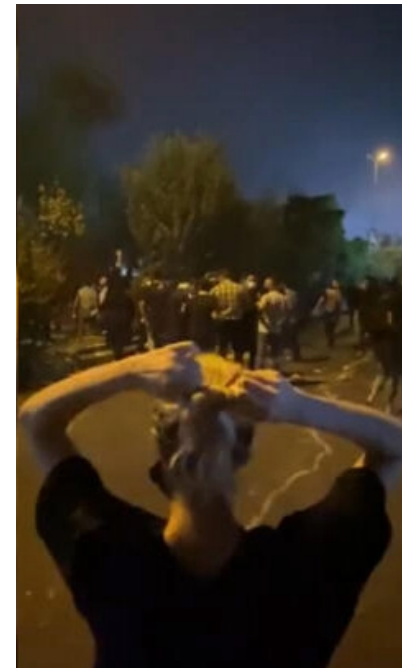
Q. 패널리께서는 이란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혹은 이란의 상황을 한국에게도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번 시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는 이 소식을 처음 접하고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마흐사 아미니는 아예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보이게 썼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이라는 존재에게 끌려가 죽음을 맞았는데요. 히잡에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여성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패널리께서는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을 처음 접했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A. 저도 엄마고 할머니인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도 안타깝게 한 아이가 또 죽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 왜냐하면 이런 죽음이 이란에서 처음은 아니니까요. 너무 아팠습니다. 죽음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지금 도덕 경찰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부터 참 웃기죠. 1960~70년대에 한국에서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머리카락이 길거나 나팔바지를 입으면 잡고 그랬듯이. 웃기는 얘기죠.

이란 혁명 발발 후 1979년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지고, 호메이니 정권은 가장 먼저 여성에게 히잡을 씌웠어요. 원래 히잡 착용은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당시 3천 명의 여성들은 히잡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어요. 많이 죽었어요... 정권이 워낙 강경 진압하다 보니 저항이 수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43년 동안 움직임

* 서울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총길이는 3.7km, 왕복 10차선 도로로, 역삼동의 강남역 사거리부터 삼성동의 삼성교 사이를 잇는다. 테헤란로의 원래 이름은 삼릉로(三陵路)였으나, 1977년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시(市)의 골람레자 닉페이 시장이 서울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현재의 도로명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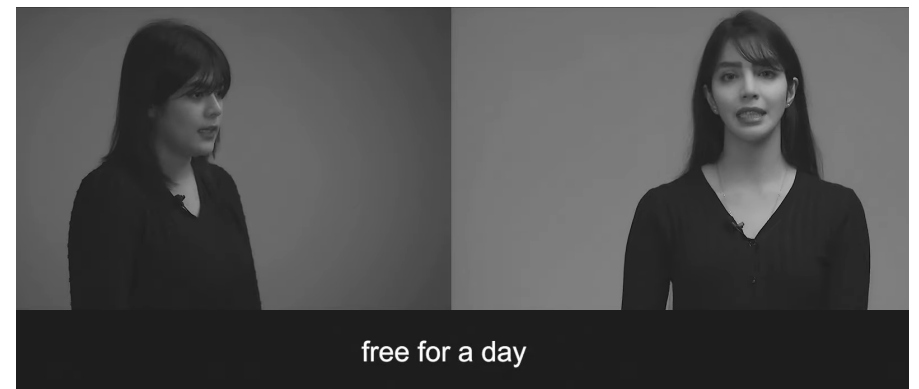
은 계속 있었어요. 처음 3천 명이 모였던 것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이죠.



이 영상 속 주인공은 '하디스'라는 여학생인데요.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날 거리에 나가 바로 죽었습니다.

이란 여성은 하루라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아까 캠퍼스에 올 때 저를 안내해 주시던 여학생 분이 어느 조형물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 이런 것도 있었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걸 매일 보면 무뎌지잖아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가 어쩌다 한번 집중해서 보면 눈에 들어오죠. 자유는 그런 것입니다. 이란 여성에게는 히잡을 쓰지 않는 자유로운 하루가 귀합니다. 그 하루가 필요하고, 그 하루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 이란의 유명 여성 하디스 나자피(Hadis Najafi, 23)는 “모든 게 바뀌게 되면 난 행복할 거야”라는 말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 그는 이란 당국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The Economic Times]



▲ 영상 <Woman, life, freedom>의 한 장면. 이란 여성들은 '단 하루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간다. [Youtube, Niusha Shariloo]

Q. 기사를 찾아보니, 이란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때리고 활동가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혹은 끔찍한 방식으로 공개 처형까지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당시 벌어졌다는 일들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현재 이란 정부에서 시민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 특히 여성들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마흐사 아미니 사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 거리로 나섰어요. 7개월 정도 지나니, 정부가 거리에 나온 이들을 체포해 투옥시키거나 총으로 쏘기 시작했어요. 언론이 사건을 알리지 못하도록 기자들까지 체포하고 사살했어요. 정말 끔찍하게요, 정부는 산탄총으로 일부러 눈만 조준해서 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시민이 눈을 잃었어요. 그리고 여학교만 타겟팅해 화학 가스 등 독극물로 테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학생들은 학교 안에 걸린 지도자의 사진을 내리거나, 성직자의 터번을 벗겨 던지거나, 학교 밖에서 구호를 외치는 식으로 정부에 항의하곤 했어요. 이제 여성들은 히잡을 쓰지 않고, '죽인다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집 밖을 나서요.

Q. 지금까지 이란 정부가 시민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국으로 건너온 이란인에게 가해지는 폭력도 있나요? 사실, 이 토크콘서트 자리에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던 이란인 룸메이트가 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신상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이슈를 알리고 있는 이란인들에게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같은 협박 문자를 SNS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A. 이란 정부는 이란에 있는 활동가의 가족을 찾아가 겁을 줍니다. 활동가들의 부모에게 '당신 자녀가 이란에 입국하면 바로 체포할 것'이라고 협박도 하고요. 부모 대부분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병원에 다닐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란 정부가 활동가들의 부모의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끊어버립니다. 아직까진 이란인이 한국에서 이란으로 입국하다가 잡히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유럽과 캐나다에서 이란으로 입국하다가 잡히는 사

* 외신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여학교 52곳에서 학생 1200명 이상이 피해를 당했다. 농약과 살충제에 들어가는 독성 화학물질이 학교에서 발견됐고, 이를 들이마신 학생들은 호흡곤란과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러한 테러는 주로 여학생을 겨냥해 이어지고 있는데, 히잡 시위를 주도하는 여성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된다.

례들은 있어요. 이란인이 입국 과정에서 체포되면, 정부는 스마트폰을 압수해 모든 자료를 열어봅니다. 만약 이란 시위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이라도 있으면, 그걸 빌미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 2023년 5월 16일, 용봉편집위원회의 주최로 재한 이란 여성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Q.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란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시민들을 억압하는 걸까요?

A. 결국 돈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란은 굉장히 축복받은 땅입니다. 석유만 있는 게 아니라 금이나 지하자원도 많아요.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가 장악했는데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다른 국가에게도 세를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고요. 돈을 얻으려면 이란 사회를 통제해야 해요. 그러려면 우선 약자인 여자부터 통제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자를 여자 위에 세우고, 남자 위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란 사회를 지배합니다.

Q.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경제와 정치의 이유까지 얹혀 있었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전까지는 이란 여성의 복장이 당시 한국 여성의 복장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란이 '중동의 패셔니스타 국가'라고 불렸다고도 들었어요. 지금의 이란 사회와 이란 여성의 삶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란이 여성에게 억압적이고 보수적으로 바뀐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A.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어요. 이란 사회는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혁명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지기 전, 팔레비 왕조 시대에는 여성들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웠어요. 복장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판검사, 비행기 조종사, 군경, 건축가도 있었습니다. 팔레비 왕조는 오히려 히잡을 벗기려고 애썼어요. 사회적으로도 언론의 자유 등이 보장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란에서 여성은 가수도 못해요.

Q. 사실 히잡을 쓰든 말든 착용 당사자는 여성이고, 개인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란 정부는 그것을 통제하고 또 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사실 이번 시위의 핵심은 이란 여성이 히잡을 쓰느냐 마느냐 그 자체라기보다는, 국가가 빼앗은 여성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번 시위의 핵심 슬로건이 "여성, 삶, 자유"인데요.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이란 여성과 시민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요구하는지 말씀해주세요.

A.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도 "여성, 삶, 자유"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란 디아스포라가 전부 다 외치는 구호입니다. 자유 없이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히잡" 때문에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히잡 시위가 아닙니다. 지금 이란과 전 세계의 이란 디아스포라들이 하는 것은 새로운 여성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히잡 시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히잡 착용 의무화 반대'를 넘어 '이란의 자유'를 원합니다. 이란의 자유. 이란이 현 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란은 죽습니다. 우선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Q. 과거에도 이란에서는 여성들이 히잡 착용이나 권리 신장과 관련해 꾸준히 저항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년 전과 12년 전에도 꽤 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시위는 단발적이었고 좀 더 빠르게 축소한 반면, 이번에는 훨씬 더 장기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시위의 목표와 전개 방향 등의 측면에서 이번 시위가 이전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A. 이전 시위들은 구체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이야기했어요.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또 그에 대한 정치적 목소리를 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자유'라는 보편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란에서 시위가 일어나도, 이란 디아스포라들이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자신은 타국에서 편안히 살고 있고 이란에 갈 일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이란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라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한국에 온 지 43년이 됐지만, 그동안 이란에 두 번밖에 안 갔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이란 디아스포라가 한뜻이 됐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하나예요. 시위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모두 한마음으로 지금 이란의 자유를 바라고 원하는 거죠. 사실 현재 이란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건 "빵"이 아닙니다. 노동자들도 살기 어렵지만 파업을 합니다. 빵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란 어디서 시위하든 간에, 구호는 전부 "정권 교체"예요.

Q. 과거에는 특정 의제에 국한해 시위가 전개됐다면, 지금은 의미를 훨씬 확장해 전 사회적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히잡 강제 착용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정권과 사회를 바꾸려는. 그래서 "독재자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도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더 나은 이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란 여성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여학생 및 여성 청소년과 연대해 운동을 주도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룸메이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대학생들이 캠퍼스의 장벽을 넘어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특히, 정부가 왜곡한 내용들이 TV에 그대로 나오니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버리는 노인 분들이 많은데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들었습니다.

A. 네 맞아요.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방송은 정부 쪽에서 하는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서 SNS로 진실을 많이 알리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시위 일정과 장소를 서로에게 알리기도 해요. 물론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해 정보 공유는 지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벽에다가 직접 소식을 적어 알리기도 해요.

Q. 스포츠선수, 영화배우 등 각계각층의 유명인과 세계 각국의 시민도 이란 여성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시위에 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이란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고 싶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줄 수 있는 이들이 많은 것이죠. 목숨을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다들 한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는 유럽, 미국, 캐나다 등지에 거주하는 이란인 10만 명이 독일 베를린으로 모였어요. 이들은 조국의 자유 원해요. 조국의 자유가 없으면 외국에서 마냥 외국인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 나라가 있어야죠.

Q. 앞서 패널께서 말씀하셨듯, ‘자유’라는 말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공기와 같은 가치네요. 패널께서 지금까지 이 싸움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싸움이 패널 자신을 바꿔게 한 것도 있나요? 혹은, 이 시위가 일어나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초등학교 4학년인 제 손주가 저보고 독립운동가 같다고 말합니다. 제가 독립운동가가 됐어요. (웃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두 팔 걷고 나섰지요. 자기 나라가 있어야 하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도 나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Q. 이 시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전국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널이 생각하시기에, 이 시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망을 조심스레 여쭙보고 싶습니다.

A. 현재 이란 청년들은 총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손에 들고 있는 거라곤 돌맹이뿐이에요. 이들이 총을 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전을 우려하기 때문이에요. 이란에는 소수민족이 많고, 마흐사 아미니처럼 쿠르드족은 총 없는 집이 없어요. 그렇지만 총을 쓰지 않습니다. 이란 시민이 갈라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저는 민주주의가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히잡 시위를 시작했고, 이제는 더 이상 시위가 아니라 혁명이기 때문에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물론 시위의 불씨가 초기보다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사그라들었다 싶으면 또다시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1년,

2년?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승리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Q. 저도 반드시 이란 여성과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하길 염원합니다. 이번 일 이 승리로 끝난다면 이란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리고 시위가 끝난 뒤 패널께서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승리한다는 건 이란 정권이 바뀐다는 이야깁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면 이란은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6, 70년대 이란은 중동의 꽃이었습니다. 이란의 평화는 주변의 억압된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레바논, 시리아, 사우디, 예멘 등등이요. 이 나라들은 이란의 현 정권 때문에 시끄러워졌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종교는 평화에 반하는 가치들을 줄곧 교육해왔습니다. 이란 시민은 이스라엘, 미국 등 다른 나라 시민들과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복수는 무의미합니다.

저는 이란에 자유가 온다면 이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희생된 우리 아이들의 명예를 찾고 싶어요. 그들의 부모도 만나보고 싶고요. 같이 껴안고 울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냈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Q. 한국에서도 이란 여성 및 시민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A. 오늘 토크콘서트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이란에 대해 알리는 게 중요해요. 만일 힘이 닿으신다면 많이 알려주세요.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불러주세요.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서울까지 많이 멀지만 오실 수 있다면 가장 좋죠.

Q. 마지막으로, 오늘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한국/광주의 대학생 그리고 시민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오늘 참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항쟁이 80년도에 일어났는데, 제가

79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광주는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광주에서도 큰 아픔이 있었는데 서울과 다른 지역에서는 다들 잘 알지 못했어요. 80년대 서울에서도 시민들의 수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뒤에 살고 있었는데 대학 앞을 지나갈 수 없었어요. 당시 일반인이었던 제가 봤을 때, '아니 재네들은 공부나 하지 왜 저래?'라고 생각했던 말이죠. 저희가 테헤란로에 모였을 때도 어떤 연세 많은 두 분이 "아니, 너희는 왜 여기서 이려고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렸더니, "너희 나라 가서 하지, 왜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하나"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내 나라는 아니죠. 그렇지만 한국 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모르실 겁니다.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예요. 관심 갖지 않으면 그냥 묻습니다. 이란 정권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는지, 시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토크콘서트 이후 《용봉》과 참가자들은 패널에 다양한 질문을 남기고 답변을 받았다. 아래 내용은 질의응답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 이날 참가자들은 패널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왼쪽부터 이슬 편집위원, 이형호 편집장, 박씨 마님.

Q. '히잡'은 시위의 도화선이지 '히잡을 쓰느냐 마느냐'가 시위의 전부는 아닌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히잡'이 이슬람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A. 시위참여자 가운데에도 히잡을 쓰고 오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히잡은 본인의 신앙에 따른 '선택'의 영역입니다. '강제로' 씌우려고 하니 문제죠. 예전에도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안 쓰고 싶은 사람은 안 썼어요. 물론 10대, 20대 여성 대다수는 히잡에 관심이 없고 원하지 않습니다. 히잡 착용을 하나의 억압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Q. 이란 시민들이 추진하려는 사회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지 더 들어보고 싶어요.

A. 호메이니정권이 들어서부터 지도자들은 자신을 정치가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정체성화합니다. 이란 사회에서 종교는 오직 이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사실 이란은 기독교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대교, 아르메니아와 알제리 소수 민족의 소수 종교들도 모두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란 시민은 전체 시스템 개혁에 앞서, '정교 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민주주의도 가능하며, 이로써 수많은 모습이 변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 개혁의 첫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히잡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종교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 여성을 통제하려고 히잡을 씌우는 것이죠. 우리는 히잡 의무 착용에 반대함으로써 이란 사회를 탈바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작년에 일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제 자폭 드론이 민간인 학살에 쓰이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란 정부가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과도 손을 맞잡고 있는데요. 이란의 국제 문제와 관련해 패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 좋은 질문이에요. 말씀하신대로, 평화와는 거리가 먼 국가들과 이란이 밀착하고 있어요. 덧붙여서, 러시아가 이란 내 정치에도 손대고 있고요. 평화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란 정부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고 문제를 수습하려고 이란 디아

스포라들이나 과거 팔레비 왕조의 통치자들이 세계 곳곳의 정치인과 외교관들을 만나고 있어요. 테러 같은 극단적인 활동도 방지하려 하고요.

Q. 40여 년 전 이슬람 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는데, 현재 이란은 억압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패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현재 기성 세대는 우리 손으로 이란을 죽였다고 고백해요. 지금의 20대는 저희 세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슬람 혁명 때 호메이니 정권이 약속했던 것 중 많은 부분이 거짓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됐고,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 이제와서 후회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정확한 소식을 빠르게 공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두 번은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Q. 이란 혁명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느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A. 저희 <재한 이란인 네트워크>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사이트에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꾸준한 관심을 가지려면 일단 뉴스에 이란 이슈가 나오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에 보도되는 이란의 소식은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영문 기사를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 토크콘서트를 마친 후, 이란 여성과 민주 시민에 연대하며 촬영한 기념 사진.

* <http://iraniannetwork.org/>

- “우리의 외침이 이란 민주화 밑알 되길” [스카이데일리, 23.03.20]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86840
- 이란, 여학교만 52곳 독가스 테러... ‘히잡시위’ 보복 가능성 [채널A 뉴스, 23.03.07]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37831
- 이란 '히잡 미착용女' 의문사 항의 시위 격화, 3명 사망 [연합뉴스, 22.09.21]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1003200111>
- 미니스커트 뺀진지 40년...“No히잡” 이란 떠나는 이란 여성들 [중앙일보, 20.01.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85068#home>
- Mahsa Amini: Women in Iran burn headscarves in anti-hijab protests [BBC, 22.09.21]
https://www.youtube.com/watch?v=I-pxST_GHv4&t=28s
- 이란 ‘히잡 의문사’ 시위 해외로 확산 [조선일보, 22.09.27]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9/27/3PV7FXHON5DXZP3WPGKDQDBUUQ/
- 미니스커트 뺀진지 40년...“No히잡” 이란 떠나는 이란 여성들 [중앙일보, 20.01.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85068#home>
- 이란 '히잡미착용 의문사' 시위 격화...“발포에 16세 등 9명 사망” [연합뉴스, 22.09.22]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9/27/3PV7FXHON5DXZP3WPGKDQDBUUQ/
- “비참한 경제, 늙은 성직자에 질렸다”...이란 히잡 시위, 정부 퇴진 선봉에 [한국일보, 22.09.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710090005739>

- 번지는 이란 히잡 거부... 이슬람 체제 균열 부르나 [뉴스+] [세계일보, 22.09.28]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927515200>
- 히잡을 불태우는 이란 여성들 [뉴닉, 22.09.30]
<https://newneek.co/post/M5S7rm>
- [히잡시위 한달] ① 이란에서 이런 시위는 없었다...10·20대, 여성이 주도 [연합뉴스, 22.10.16]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4153600111>
- 이란 “76명 죽었지만” 머리카락 깎기로 들었다...지구적 저항 [한겨레, 22.10.1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60303.html
- 인권운동가 하셰미 체포...“히잡 시위, 이란 정권에 결정적 순간” [한겨레, 22.10.1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60551.html
- ‘관용과 감시’ 모순의 이란...히잡 시위도 그렇게 시작됐다 [한겨레, 22.10.1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60953.html
- 히잡 때문에 죽었다, 히잡을 벗었다...한달 맞은 이란 시위 [한겨레, 22.10.1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62806.html
- 이란 대표팀, 국가 제창 거부했다...히잡시위 연대 뜻 [한겨레, 22.11.22]
<https://www.hani.co.kr/arti/sports/soccer/worldcup/1068264.html>
-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지한 이란 ‘히잡 시위’ [경향신문, 23.01.11]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1111003001>
- 라프산자니 前 이란 대통령 딸, ‘히잡 시위’로 징역 5년형 [조선일보, 23.01.11]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1/11/GWDLASF5KVCDNKXWDMIGJDGUA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히잡 미착용女’ 의문사...이란 시위 격화·3명 사망 [연합뉴스, 22.09.21]
<https://www.youtube.com/watch?v=ak1abm4ypL4&t=10s>
- Mahsa Amini: Women in Iran burn headscarves in anti-hijab protests [BBC News, 22.09.21]
https://www.youtube.com/watch?v=l-pxST_GHv4&t=28s
- 40년 전엔 미니스커트 입던 나라, 중동의 패션리더 이란은 왜 이렇게 됐을까? [14F, 22.12.28]
<https://www.youtube.com/watch?v=6laRN3KI4L0>
- Woman, life, freedom [Niussha Shariloo, 22.12.14]
<https://www.youtube.com/watch?v=P3IRRTaA0bU>
- 히잡을 둘러싼 논쟁 [똑똑]
<https://www.dokdok.co/brief/hijab>
- [기고] 이슬람에 대한 우리들의 다섯 가지 오해와 편견들 2편 [난민인권센터, 19.09.23]
<https://nancen.org/1974>

42 한부모이주여성, '한부모'와 '다문화'라는 이중 정체성으로 현실에 맞서다

54 장자 철학의 사이보그적 독해

- 페미니즘과 장애학 관점의 과학-기술 담론을 중심으로

64 전쟁은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읽고



여성

한부모이주여성, '한부모'와 '다문화'라는 이중 정체성으로 현실에 맞서다

수습위원 정하 (wjdgk7245@naver.com)

한부모이주여성을 향한 관심과 논의는 어디에

우리 부모님은 20년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통합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 부모님이 퇴근하신 뒤에도 종종 그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갑자기 늦은 밤에 전화가 오는 건 대개 좋지 않은 신호다. 위험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전화라면 겨울철 야간작업 중에 일어난 절단 사고나 임금체불, 상사의 폭행 같은 이유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전화라면 남편의 폭력과 폭언 때문에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흐느끼는 울음에 마음이 쓰였다. 우리 가족이 당장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었다. 공장에서 일어난 일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가족 문제를 철저히 사적인 영역으로 여기고 있는 사회에 속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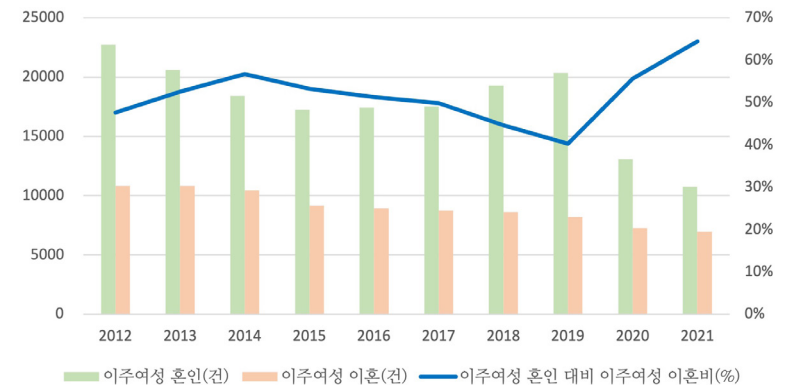
그러나 그 무력감이 무색하게도, 다음 날이 되면 수화기 너머의 울음소리를 잊었다. 그 여성이 당연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말 이혼했는지 아닌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모두를 '비주류'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혼자 기르는 결혼이주여성, 즉 한부모이주여성의 삶이 고달픈 것은 눈에 뵈었다. 어릴 적부터 다문화 환경을 접한 나조차 그들의 삶을 상상해 본 적 없다는 부끄러움이 밀려들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 이주자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세계화와 국내 경제 성장 이후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촌 미혼남성의 혼민 문제가 새롭게 나타났다. 그즈음에 자연스레 한국 정부는 국제결혼 제도를 도입했고 결혼이주여성이 유입하기 시작했다.

다.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출신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노동자나 유학생보다 훨씬 복잡다단한 어려움을 겪는다. 낯선 땅에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모두 '정상 가족'의 범주를 벗어난 '비주류'에 속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외국' 출신의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한부모는 어머니와 아버지 중 한쪽을 잃은 '비정상 가족'으로 여겨질 뿐이다. 두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 한부모이주여성은 경제적, 사회적, 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장 먼저 사회적 관심과 논의 밖으로 밀려난다. 정부와 시민은 '지구촌 사회', '글로벌 시대'라는 말을 즐겨 쓰지만, 정작 한부모이주여성을 배제하는 현실 속에서 당사자에게는 기만적인 이야기다.

경제적 궁지에 몰린 한부모이주여성

이주여성의 혼인과 이혼 건수



▲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동향조사. 이주여성은 여성 중 출생기준 한국인 제외한 외국인과 귀화자를 가리킴. [통계청]

* “이 시기부터 외국인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 미혼 남성의 결혼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부터 정부는 ‘연변 처녀와 농촌 총각 짝짓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제결혼 중개계약과 혼인신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6, 강승목, 77-78쪽.

**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는 사회 및 문화적 구조와 사고방식”을 뜻한다. 김희경, 『이상한 정상 가족_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동아시야, 2017, 89쪽.

*** 결혼이주여성은 정주민이 아닌 ‘외국’에서 이주를 온 데다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이혼 중 여성 외국인·귀화자의 혼인 및 이혼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 대비 이혼비는 여전히 40~60%에 달한다. 국제‘결혼’에 못지않게 국제‘이혼’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별히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이혼/별거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자 92.9%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이주 여성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주여성이 자녀를 양육한다. 우리 사회에 자녀와 함께 자기 몸만 덩그러니 놓인 한부모이주여성에게 당장 필요한 건 '경제력'일 것이다. 우선 주거·식사·의료·교통 등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혼자 책임져야 하고, 본국에 있는 가족의 경제난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다. 귀화를 위해서도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결혼 이주여성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왔더라도 귀화 전까지 여전히 외국인 신분이다. 따라서 정주민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얻지 못하고 번거로운 체류 기간 연장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스스로 살아갈 만한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경제력이다. 만약 한부모이주여성이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3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가 있으면 귀화가 수월하지만, 배우자가 없다면 혼자 돈을 모아야 한다.**

생계유지 다음으로 무엇이 한부모이주여성을 돈 버는 일에 매달리게 할까? 바로 양육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혼·별거 이후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전 배우자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59.5%)에 달했다.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단 2명(21.4%)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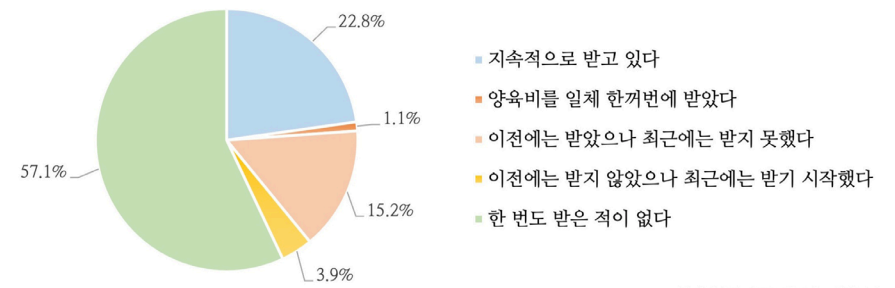
보통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이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양육비 지급을 자연스레 멈춰서,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서, 전 배우자를 향한 보복 심리가 작동해서 그렇다. 많은 한부모이주여성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전 배우자와 심한 갈등을 겪는다. 결국 한부모이주여성 중에는 길어지는 이혼 소송을 끝내고

*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97쪽.

** 한부모이주여성이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다면, 일반 귀화를 통해 귀화할 수 있다. 일반 귀화는 6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을 증명해야 한다. 더 수월한 간이 귀화를 위해 한부모이주여성이 자녀 양육권을 가져가기도 한다.

하루빨리 자녀와 새출발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이 양육비 미지급 이유이기도 하다.

2021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이혼·별거 후 자녀 양육비 수령



▲ 202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자는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가정법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이행 명령이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 먼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이주여성은 이행 명령을 통해 강제로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 배우자가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의 일부를 양육비로 지급하거나, 매월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엔 양육비에 상당하는 부동산이나 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자에게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다.*** 만약 이행 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령 종류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시행된다. 감치 처분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법적제재도 가능하다.

문제는 한부모이주여성이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 용어가 많아서 소송 자체가 한부모이주여성에게

*** 차례대로 직접 지급명령, 담보 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 감치(監置).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 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한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막연한 두려움을 자아낸다. 게다가 양육비를 돌려받는 것이 한 번의 소송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전 배우자가 위장전입 같은 편법을 사용하거나 모르쇠 태도로 일관한다면 판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겪는 한부모에게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이주여성은 홀로 가정을 유지하는 삶이 버거워도 양육비를 돌려받으려고 전 배우자를 다시 마주하느니 내 힘으로 마련하고 말겠다는 심정이다.

*"남편이 저 너무 많이 무시하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할 때 싸인하고
얘기만 데리고 나왔어요. 그동안 남편한테 생활비나 양육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저 지금 얘기 혼자 키우는 것 너무 힘들지만 남편한테 받고 싶지 않아요."*

양육비 미지급을 긴급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있어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름처럼 최대 12개월밖에 지원되지 않고 금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이 먼 듯하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단위: 원) [서울특별시]

이들은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소득을 늘리길 원하지만, 정작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법의 모순을 겪기도 한다. 만약 자녀가 한 명 있는 한부모이주여성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

* 한부모 결혼이민자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2018, 김희주, 143쪽. 참여자F.

** 2023년 기준 9,620원.

자. 그러면 한부모이주여성은 세전 약 2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을 것이다.^{***} 하지만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인 가구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많아도 172만 8,077원(기준 중위소득 50%, 교육급여)이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200만 원보다 한참 밑도는 금액이다. 동일 상황에서 주거급여는 162만 4,393원(중위 47%), 의료급여는 138만 2,462원(중위 40%), 생계급여는 103만 6,846원(중위 30%) 이하가 되어야 수령 가능하다. 결국 한부모이주여성은 소득과 정부 지원 사이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만다. 정부 지원을 선택했을 때 빈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은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 한부모이주여성만을 위한 법은 없을까? 안타깝게도 아직까진 없다. 대신 한부모이주여성과 가장 가까운 두 법,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다. 두 법은 적용 대상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이라는 목적을 공유하지만,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법이 한부모이주여성을 특례에서 간접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를 보면, 가족 해체를 겪고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이주여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가족 해체를 경험한 자녀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할 뿐이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는 한부모이주여성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부모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법·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현행법처럼 한부모이주여성을 특례에 간접적이고 모호하게 언급한다면, 실질적인 적용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이처럼 아직 한국에는 한부모이주여성 맞춤형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한부모이주여성 지원 정책을 다문화^{***} 8시간x5일x4주x9,620원=1,672,048원, 주휴수당 334,410원.
^{****} 가구의 생활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국가복지정책. 흔히 사용하는 단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뜻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 그들의 생원함으로써할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 그들의 생원함으로써할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가족 지원 부서와 한부모가족 지원 부서 중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원이 늦어져 한부모이주여성이 적절한 때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앞서 양육비 미지급, 소득과 정부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법의 모순, 한부모이주여성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법의 공백을 알아보았다. 한부모이주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경제 상황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양육비를 감당할 만큼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국가가 그 양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감당할 능력을 갖추거나 한부모이주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이 줄 것이다.

다음으로, 한부모이주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청소년 한부모나 미혼 한부모를 주인공으로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한부모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쪽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지원 선정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꿔 한부모이주여성이 여러 지원을 너르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원 정책 담당 부서를 확실히 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한부모이주여성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이로써 부서 간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부모이주여성을 가로막는 언어장벽

한부모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 경제적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국어 능력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국어는 넘기 어려운 언어 '장벽'이다. 우선 부족한 한국어는 일자리 선택의 폭을 저임금·장시간·고강도의 질 낮은 일자리로 제한해서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든다. 언어장벽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치명적인 어려움으로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작용한다. 한국어가 부족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녀의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늦는 경우도 있다. 성장하는 자녀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한 한부모이주여성은 온통 한글로 된 학교 가정통신문을 이해하지 못해 생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학교에서 매일 서류 엄청 많이 보내오는데 다 이해 못 해서 섭섭해요. 계속 보면 머리 아파요. 직접 문자 보내거나 전화해서 이거 필요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부모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서 전국의 다문화 지원 기관은 한국어 교실, 문화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장기 거주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자, 창업 교실 같은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열리는 추세다. 하지만 한부모이주여성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열리기는 하지만, 사실상 한부모이주여성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협소하다. 주로 일하는 시간대에 한국어 교실이 열리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소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공기관 성격을 띠어서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는다. 당연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쉰다. 물론 정부가 운영하지 않는 다문화센터가 전국에 많지만, 이곳들마저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한국어 교실을 잘 열지 않는다.

비단 한국어 교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부모의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한부모이주여성이 참가하기 쉽지 않다. 여성가족부 소속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 단절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하고 있다. 한식조리전문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과정, ITQ 자격증 취득 과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들 역시 평일 아침부터 점심까지 운영되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 교육에 참여한다 해도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전문용어로 가득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애초에 관련 경력과 자격증이 있는 여성을 우대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수강이 가능한 실무 교육이 많다. 이주여성이 우선선발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한부모이주여성이 얼마나 될까.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이주여성이 취업 및 자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체계의 허점 때문에 다수가 그 지원을 제대로

^{**}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2016, 김강남, 75쪽. 참여자7.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옆 나라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 한부모를 위한 일회성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토대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동일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부모의 상황을 섬세하게 고려해서 지원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한국과 달랐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부모 자립지원센터는 놀이방을 겸비한 세미나실을 마련하거나 출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가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고, 양육과 취업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또 한국처럼 직업훈련을 위한 기관이 있는데, 한부모가 그곳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으면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를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직업훈련 후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연계를 도모하고 있었다.

물론 위 사례에 관한 자료가 국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한부모 중 이주여성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한부모이주여성에게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여전히 언어장벽으로 인한 취업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생계와 자립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 사례로부터 세심한 체계를 본받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부모와 다문화 그리고 여성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닌 한부모이주여성에게 이와 같은 섬세한 체계는 더 나은 제도를 설계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정보 소외와 정서적 불안을 일으키다

'혼자' 가정을 책임지고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현실은 빈곤만큼 한부모이주여성을 힘들게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국적과 문화가 다른 새로운 사회에 진입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대폭 좁아진다. 사회적 관계망을 늘리고 싶어도 일을 해야 하거나 가족을 돌봐야 해서 말처럼 쉽지 않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모임 정보를 몰라서, 드물지만 시댁 식구가 동네 이웃과 접촉을 의도적으로 막아서 사회적 관계망은 좀처럼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부모이주여성 개인의 잘못과는 거

* Social Network. 개인이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나 집단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사회적 지지에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경제적 지지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일반 행정기관(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정부 개입으로 형성되는 공식적 관계망과 정부 개입 없이 사적인 방식으로 형성되는 비공식적 관계망이 있다. 필자는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리가 멀다. 그들이 의도치 않았어도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난다.

한부모이주여성이 이혼한 후 그 관계망은 더욱 협소해진다. 이혼 후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면서 전에 맺은 관계들이 끊어지거나 육아와 일로 모임을 할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부모이주여성은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을 느끼고 정주민에게 먼저 다가가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한부모이주여성이 정주민과 교류를 줄이면 가장 먼저 자녀 양육에 타격을 입게 된다. 교사나 학부모와 교류도 줄기 때문이다. 한부모이주여성은 대개 한국의 교육 사정을 잘 모르거나 교육 관련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 상태에서 교사나 학부모 사이 교류를 줄이면, 교육·진로·진학·양육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 궁극한 점이나 고민이 생겨도 해소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 또한 지원제도가나 사회적 자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예를 들어, 아동 양육비 지원제도를 알려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을 못 해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부모이주여성은 내용을 쉬운 말로 자세히 설명해 줄 이웃이 필요했지만, 주변에서 찾기로 좀처럼 쉽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움과 정서적 불안도 커진다. 이혼 전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시댁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편히 기대지는 못해도 의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혼 후 이어지는 고단한 생활에 정서적인 지지와 위로도 충분히 받지 못하니 마음까지 병들어 가고 만다. 때로는 자신이 갑자기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곤 한다. 한부모이주여성은 협소한 사회적 관계망 때문에 매일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누구든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이다. 혼자보다 여럿일 때 금방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소외와 정서적 고립에 취약한 한부모이주여성에게는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 “제 생각에 이혼한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데 외국인들이 이혼하면 차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그리고 부자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학교 엄마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참여자 C).” 한부모 결혼이민자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2018, 김희주, 152쪽.

우선 한부모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이 별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려움은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잠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모두의 어려움이자 공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한부모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하여

이처럼, 한부모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그 원인은 서로 복잡적이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한부모이주여성은 '한부모'와 '다문화'라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 글에 서술하지 않은 한부모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 우리는 숨어있는 문제와 그를 일으키는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한편, 글에 소개한 정책은 대개 단기성, 지원성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단기성 정책은 한부모이주여성이 당장 어려운 상황을 뒤집기에 충분치 않다. 지원성 정책은 한부모이주여성이 계속 정부 지원에 의존하도록 하여 오히려 한부모이주여성의 자립을 방해한다. 이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부모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때 우리는 한부모이주여성을 국가와 사회가 일방적으로 도와야 할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 물론 한부모이주여성은 홀로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타인의 손길이 일정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한부모이주여성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도록 기여해야 한다.

한부모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나에게도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 가정을 사적 공간으로, 가정의 일을 개인의 일로 보는 사회에서 한부모이주여성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기란 쉽지 않다. 담론 활성화를 위해 우리는 한부모이주여성 역시 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권리 주체를 점차 확장해 나가다 보면, 한부모이주여성의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다. 그런 세상이 될 때까지 한부모이주여성을 향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말자.

- 강승묵, 「국제결혼중개계약과 혼인신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양법학』 27(3) (2016): 77-100.
- 김강남,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다문화와 평화』 10(3) (2016): 54-84.
- 김선숙, 왕경수,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 후 자립에 대한 사례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8(4) (2021): 103-118.
- 김희주, 「한부모 결혼이민자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가족과 문화』 30(2) (2018): 129-170.
- 김나영,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양상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성 강화 방안」, 『한국사회복지교육』 61 (2023): 85-120.
- 김경화,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과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4(2) (2020): 117-140.
- 김은경, 남보영, 최선아, 최서연,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립에 관한 질적연구 자활사업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6(1) (2021): 81-110.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1]
- 2022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2023]
- 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 2023년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2023]
- 경기도 이주여성 한부모 연구 [정정옥, 2022]

장자 철학의 사이보그적 독해

- 페미니즘과 장애학 관점의 과학-기술 담론을 중심으로

물리·19 태현 (xogustkfkdaa@naver.com)

I. 들어가는 글

현대사회에서 ‘과학적’인 것은 가치중립적인 보편 진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만, ‘비과학적’인 것은 신뢰받지 못한다. 그 가치중립성이라는 특성상 과학-기술^{*}의 발전은 당연히 인류 문명을 수많은 위협과 제약으로부터 해방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과학-기술이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예를 들어 하버-보슈법^{**}의 등장으로 식량 생산이 증대되었고, 이는 의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이어졌다. 과학-기술은 미래의 세계에서는 난치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치료되고 정상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까지도 약속한다.

하지만 현대 과학철학에서는 과학의 가치중립적 객관성과 보편 진리로서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한다. 과학-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인 진리도 아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차별의 논리를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조장하는 많은 이론이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되었다. 「사이보그 선언문」으로 유명한 미국의 페미니스트 과학철학자 도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는 “전통적인 사회가 정보과학 체제의 사회로 변화하면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편, 장애의 종식을 이야기하는 낙관주의적 기술 담론은 장애라는 경험과 장애인이라는 주체를 지워버리기도 했다.^{****}

* 과학과 기술은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학기술이라는 하나의 합성어로도 사용되는 만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두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을 엄격히 나누지 않고 ‘과학-기술’이라는 표현으로서 함께 다룰 것이다. 글에서 ‘과학’이나 ‘기술’이라고 따로 나타내더라도 ‘기술적 실천의 근거가 되는’ 과학과 ‘과학에 근거한 실천으로서’ 기술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 독일의 화학자인 하버와 보슈가 고안한 암모니아 합성 공법으로 이후 화학비료 생산의 혁신이 이루어져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다.

***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옮김 (서울: 책세상, 2019) p.61-66.

****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파주: 사계절출판사, 2021) p.64-80.

그렇다면 과학-기술은 편향적이고 차별적이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할까? 과학-기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과학-기술과 부딪히^{*****} 새로운 과학-기술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저것(彼)과 이것(此), 옳음(是)과 그름(非)이라는 구분을 초월한 상태인 도추(道樞)^{*****}를 이야기하는 장자(莊子)의 철학을 통해서, 차별과 편향에 저항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제시하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 현대 과학철학에 장자 철학의 면모가 있음을 보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학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하는 샌드라 하딩(Sandra Harding)의 이론과, 성심(成心)^{*****}을 스승으로 삼는 태도를 문제시하는 장자의 이론을 비교해 볼 것이다. 나아가 인간이 과학-기술과 더욱 적극적으로 만나야 함을 역설했던 해러웨이의 이론을 장자의 사상으로 부터 꺼내 보이고 싶다.

II. 하딩의 강한 객관성과 장자의 큰 앎(大知)

페미니스트 과학철학자인 하딩은 가치중립적으로 여겨졌던 기존 과학의 객관적 방법론이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이해관계를 식별해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 객관성은 “약한 객관성”에 불과했다고 지적한다.^{*****}

***** 마르크스는 상품의 물신성(Warenfetishismus) 개념을 통해, 인간 노동의 산물인 상품이 마치 그 상품의 자연적 속성으로 인해 독자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페미니즘도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데올로기가 ‘자연적인 것[=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꾸며 놓은 것들 속에서 은폐된 사회적 관계를 밝히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지닌다. 오랫동안 과학-기술의 성차별주의를 비판하며, 가치중립적으로 보였던 과학-기술 이론과 실천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페미니즘의 큰 성과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페미니즘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페미니즘이 과학-기술을 비판하고 적대시하며 페미니즘과 과학-기술의 만남을 거부해왔던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페미니즘의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그 실천을 위한 많은 자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은 과학-기술과 더욱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만나야 한다. 오늘날의 페미니즘이 당면한 문제와 그 한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라. 김남이, 「신유물론(들)과 페미니즘, 그리고 버틀러 비판」, 도서출판여이언, 『여성이론』, 제47호 (2022), p.14-45. 임소연,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서울: 민음사, 2022)

***** 도추(道樞)는 ‘도(道)의 지도리(樞)’라는 뜻인데, 지도리는 여닫이문의 경첩을 일컫는 순우리말이다. 여닫이문에서 지도리는 안과 밖의 공간으로 분리되는 지점이자, 두 공간이 마주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도리의 특성에 빗대어 장자가 이야기하는 도추는 이 글의 뒷부분에서 더 다룰 예정이다. 도추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이정우, 「도(道)의 지도리에 서다 -장자와 사이짓기의 사유-」,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제109집 (2022)

***** 안동림, 『莊子』 (서울: 현암사, 2005) p.56 각주. 성심은 “무엇인가 일정한 의견을 갖게 된 마음, 즉 사견(私見). [...] 일정하게 굳은 마음, 즉 사비(是非)·선악(善惡)이 생겨나는 근거로서 나쁜 의미로 풀이”된다.

***** 샌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 옮김 (파주: 나남, 2010) p.75-86.

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는 “강한 객관성”^{*}을 제시하는데, 지배구조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관점에서 과학적 탐구를 시작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객관성^{**}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딩은 가치중립적으로 여겨졌던 객관성이 약한 객관성에 불과했기에, 과학 지식은 결코 정치·사회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과학 지식이 치우치지 않고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방법의 안내를 받는다는 전통적 견해는 허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하딩의 주장에서, 성심(成心)을 스승으로 삼는 태도를 문제시하고, 큰 앎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을 비판하는 장자의 사상을 읽어낼 수 있다.

(붕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올려다볼 때와) 똑같이 푸르다. [...] (붕은) 지금 남녘의 큰 바다 (南冥)를 도모하지만, 매미와 어린 비둘기는 (붕을) 비웃으며 말한다. [...] 두 작은 동물이 (붕의 앎을) 어찌 알겠는가! (이는) 작은 앎(小知)이 큰 앎(大知)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이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먼 옛날에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팔천 년을 봄으로 삼고, 팔천 년을 가을로 삼는다. 이것이 긴 수명인데, 팽조는 지금 (겨우) 팔백 년을 살았다고) 오래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팽조를 대춘과) 비교하니,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

『장자』의 첫 장인 「소요유(逍遙遊)」는 ‘붕(鵬)’이라는 큰 새가 날아오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장자는 붕의 비유를 통해 모든 것이 경계나 구별 없이 하나로 보이는 큰 앎(大知)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붕이 지닌 큰 앎을 비둘기가 지닌 작은 앎(小知)과 비교하는 우연

(寓言)^{*****}의 형식으로 큰 앎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

장자가 이야기하는 ‘큰 앎’과 ‘작은 앎’이란 무엇일까? 장자는 「제물론(齊物論)」에서 옛날 사람의 앎은 사물의 존재도 의식하지 않는 지극한 앎이었는데, 단계를 거쳐 사물의 존재를 의식하고, 사물을 경계로 구분하여 옳음(是)과 그름(非)까지 판단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옳음과 그름의 구분을 낳는 마음을 성심(成心)이라고 이야기한다.

성심(成心)을 따르고 (그 성심을) 스승으로 삼으면, 어느 누가 스승이 없겠는가? [...] 어리석은 사람도 (스승이) 있다. 성심이 있지 않은데 옳음(是)과 그름(非)이 생긴다는 것은, 오늘 월(越)나라를 찾아 갔는데 어제 (월나라에) 도착했다는 것[=궤변]과 같다.^{*****}

장자는 옳음과 그름을 구분하는 작은 앎(小知)은 성심으로부터 비롯되며, 이 성심을 스승으로 삼는 태도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붕의 앎을 깨닫지 못하고 성심을 스승으로 삼아 성심에 근거한 작은 앎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자는 성심에서 비롯한 작은 앎 때문에 “(옳음과 그름의 구분이 드러나면) 도(道)가 비뚤어지고, 도(道)가 비뚤어지면, 편애[=차별]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장자와 하딩의 이론을 비교하면, 과학의 가치중립적 객관성에 대한 전통적 믿음을 장자가 비판했던 성심을 스승으로 삼는 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가치중립적 객관성은 약한 객관성에 불과한 것으로, 과학 지식은 경계 없이 하나로 볼 수 있는 큰 앎(大知)이 아니라 편애와 차별을 낳는 작은 앎(小知)이었다. 그리고 하딩이 주장한 강한 객관성에 근거한 새로운 페미니즘 과학 지식이란 세상을 차별 없이 하나로 볼 수 있는 붕(鵬)의 앎, 즉 큰 앎(大知)이다.

* 같은 책, p.228. “성별 위계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여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 지배집단 내 남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거나 별 두드러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가설들과 실천들을 설명이 필요한 낯선 것으로 만드는 과학적 직관을 가져옴으로써, 연구결과와 객관성을 증대시킨다. [...] 성별의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과 사회관계들에 대해 평가 절하되고 방치된 삶의 관점에서 질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강한 객관성이든, 약한 객관성이든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반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반론은 이 글의 논의를 벗어난다. 이 재반론은 같은 책 p.236-43.을 참조하라.

*** 장하석, 『물은 H2O인가?』, 전대호 옮김 (따주: 김영사, 2021) p.564-95. 장하석의 다원주의적 과학 철학은 과학적 진보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하나의 실천 시스템보다는 다양한 삶의 관점으로부터 유래하는 다원주의적 실천 시스템을 강조한다. 따라서 강한 객관성의 해택을 장하석이 주장하는 다원성의 해택으로 도임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글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본문에서는 하딩과 해러웨이의 이론에 집중했다.

****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 3-5. 其視下也, 亦若是則已矣. [...] 而後乃今將圖南, 蜩與學鳩笑之曰. [...] 之二蟲又何知! 小知不及大知, 小年不及大年. [...] 上古有大椿者. 以八千歲爲春, 八千歲爲秋. 此大年也, 而彭祖乃今以九特聞. 衆人匹之, 不亦悲乎! 이 글에서 인용하는 『장자』 구절은 직접 번역해서 인용할 것이다. 일부 의역과 번역어는 김정택, 『장자 역주편』,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2, 그리고 안동림, 『莊子』, 서울: 현암사, 2005.을 참고했다.

***** 정용선, 『장자의 해체적 사유』 (서울: 사회평론, 2011) p.105. “대체로 우화의 형식을 띠고 있는 이 우언은 자신의 진의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유와 암시, 혹은 가상 인물이나 실제 인물이나 실제 인물을 자기식으로 등장시켜 그들에게 가탁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설득적인 표현 방식이다.”

***** 『장자』 「제물론(齊物論)」 14. 古之人, 其知有所至矣. [...] 有以爲未始有物者. [...] 其次, 以爲有物矣, 而未始有封也. 其次, 以爲有封焉, 而未始有是非也. 是非之彰也.

***** 『장자』 「제물론」 8. 夫隨其成心而師之, 誰獨且無師乎? [...] 愚者與有焉. 未成乎心而有是非, 是今日適越而昔至也.

***** 『장자』 「제물론」 14. 道之所以虧也, 道之所以虧, 愛之所以成.

Ⅲ. 도추(道樞)에 서기와 사이보그(cyborg) 되기

사물은 저것(彼) 아닌 것이 없고, 이것(是) 아닌 것이 없다. 스스로를 저것이라고 하면 곧 (이것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이것이라고 하면 곧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 또한 저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저것과 이것이 나란히 태어나는(方生) 이야기라고 한다. [...] (성인[聖人]에게는) 이것은 또한 저것이고, 저것은 또한 이것이다. 저것(彼)에는 또한 하나의 옳고 그름이 있고, 이것(此)에는 또한 하나의 옳고 그름이 있다. 과연 저것과 이것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저것과 이것은 없는 것일까? 저것과 이것이 그 (대립하는) 짝을 찾지 못하는 것[=대립을 넘어서는 경지]을 도추(道樞)라고 한다.*

장자는 큰 얹에 따른 결과로서 이것(此)과 저것(彼), 옳음(是)과 그름(非)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진 상태인 도추(道樞)에 서기를 권한다. 장자는 도추를 통하여 이것(此)과 저것(彼)의 대립적 짝을 세우지 않고, 획일적인 이분법을 해소하고자 한다. 도추에 서 있는 마음에는 절대적인 옳음(是)과 절대적인 그름(非)이 존재하지 않아서 어떤 판단도 정답으로 확정할 수 없고, 이와 동시에 모든 판단이 정답일 수 있다. 이것(此)과 저것(彼)이라는 개별 주체의 판단이 모두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옳음과 그름의 절대적 근거가 없어지게 옳음과 그름의 고정성은 소멸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도추의 상태는 해러웨이가 「사이보그 선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강력한 이종언어(異種言語, heteroglossia)를 향한 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이종언어는 기계·정체성·범주·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파괴하는 언어다. 또한 이것(此)과 저것(彼), 옳음(是)과 그름(非)을 대립시키는 서구 전통적 이원론***의 미로에서 탈출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언어다.**** 다시 말해 해러웨이에겐 이종언어는 사이보그가 사용하는 언어이고, 이는 권위주의적이고 유일한 이름을 경배하는 공통 언어가 아니다.*****

* 『장자』 「제물론」 10. 物無非彼, 物無非是. 自彼則不見, 自是則知之. 故曰彼出於是, 是亦因彼. 彼是方生之說也. [...] 是亦彼也, 彼亦是也. 彼亦一是非, 此亦一是非. 果且有彼是乎哉? 果且無彼是乎哉? 彼是莫得其偶謂之道樞.

** 정용선, 『장자의 해체적 사유』 (서울: 사회평론, 2011) p.177-8.

*** 같은 책, p.77. “요약하자면 서구 전통에서는 특정 이원론들이 유지되어왔다. 이 이원론 모두는 여성, 유색인, 자연, 노동자, 동물-간단히 말해 자아를 비추는 거울 노릇을 하라고 동원된 타자-로 이루어진 모든 이들을 지배하는 논리 및 실천 체계를 제공해왔다. 이 골치 아픈 이원론에서는 자아/타자, [...] 남성/여성, [...] 능동/수동, 옳음/그름[...]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옮김 (서울: 책세상, 2019) p.85-6.

***** 같은 책, p.72-3. “사이보그 글쓰기는 본원적 순수함이라는 기반 없이, 그들을 타자로 낙인찍은 세



▲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북극의 휠체어(Arctic Wheelchair)>, <털복숭이 휠체어(Furry Wheelchair)>, <달 위의 휠체어들(Wheelchairs on the Moon)>. ©Sunaura Taylor

하딩이 강한 객관성을 제시했다면, 해러웨이는 구조적 억압의 지배를 받는 지식이 아닌, 부분적 시력과 제한된 목소리에 의한 지식인 “상황적 지식”을 이야기한다. 상황적 지식은 과학에서의 페미니즘 객관성이다. ‘강한 객관성’은 ‘상황적 지식’이 상대주의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딩이 사용한 용어다. 그만큼 두 개념의 정의와 내용은 유사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기존의 지배적 견해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지식’과 같은 뜻으로 사용할 것이다. 해러웨이는 상황적 지식이라는 그의 이론에 유용한 실천적 개념으로서 “사이보그”를 이야기한다.*

사이보그라 하면 영화 속의 윈터솔저나 로봇캡처럼 신체적 장애를 기계장치로 극복한 초인적 능력을 지닌 존재가 먼저 떠오른다. 이러한 사이보그의 이미지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장애가 종식될 것이라는 낙관적 담론과도 결을 같이 한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인간의 신체는 영화 속의 사이보그처럼 세련되고 온전하게 결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이보그는 영화처럼 매끄럽게 ‘결합’된 사이보그가 아니라, 청테이프를 잘라 붙여 ‘수선’된 ‘청테이프형 사이보그’**에 가깝다. 해러웨이가 상황적 지식의 실천으로서 사이보그가 될 것을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하지만 유기체와 기계의 구분을 비롯해 서구적 자아의 구조를 만드는 깔끔한 구분선이 무너지면서 출현하는 독특한 가능성을 단호히 포용할 때, 페미니즘은 엄청난 자원을 얻게 된다. [...] 나는 앞에서 “유색인 여성”을 사이보그 정체성의 한 형태로 제시했다. 사이보그 정체성이란, 오드리 로드의 “생물적 신화학(biomythography)”인 『제이미(Zami)』(로드 1982; 킹 1987a, 1987b)가 서술하는 복합적인 정치-역사적 층 속에 퇴적된 “아웃사이더” 정체성들을 융합하여 합성되는 강력한 주체성이다.**

해러웨이는 기계와 유기체가 결합한 사이보그를 통해 서구 전통의 이분법적 구분을 무너

계에 낙인을 찍는 도구를 움직임으로써 획득하는 생존의 힘과 결부된다. [...] 사이보그 저자들은 기원 설화를 다시 들려주면서 서구 문화의 핵심적 기원 신화들을 전복한다. [...] 기원 설화는 [...] 우리의 신체를 코드의 문제로 텍스트화했다. 페미니스트 사이보그 이야기의 과제는 소통과 통신을 재코드화해서 명령과 통제를 전복하는 것이다.”

* 다나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민경숙 옮김 (서울: 동문사, 2002) p.337-60.

**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파주: 사계절출판사, 2021) p.106-13.

***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옮김 (서울: 책세상, 2019) p.70-1.

뜨리고자 한다. 종종 장애를 지닌 소녀의 두뇌가 기계장치와 하이브리드가 된 사이보그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 정상/비정상, 기계/유기체, 남성/여성 등 이원론적 실체들의 지위를 문제적인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인공물인 기계장치와 자연물인 유기체로서 신체의 결합은 서로 다른 존재로 보였던 두 이원론적 실체의 경계를 허물었다. 나아가 과학-기술과 장애인의 경험이 만나면,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보였던 과학-기술이 사실은 낯설고 불완전한 것[=약한 객관성]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

약한 객관성에 근거한 작은 앎(小知)으로서 과학-기술은 장애를 신체적 결함[=그름(非)]으로 판단하고, 결함이 없는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몸의 상태[=옳음(是)]를 긍정한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어느 농인(聾人)**** 이 그의 청인(聽人)***** 가족에게 AI 음성합성기술로 자신의 목소리를 선물하거나, 생체공학 기술을 적용한 의족으로 절단 장애인인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삶을 선물받는 이야기*****는 많은 이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하지만 AI 음성합성기술이 선물하는 ‘감동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과 전동 휠체어를 타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지체장애인에게 이러한 과학-기술은 낯설고 접근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다.

완벽하지 않은 보청기 또는 삐그덕거리는 휠체어와 연결된 청테이프형 사이보그의 상황적 지식 속에, 차별 없이 하나로 볼 수 있는 큰 앎(大知)이 있다. 과학-기술이 약한 객관성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 기존 지배질서에서 배제되어왔던 아웃사이더의 시각을 수용하면, 비로소 구분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봉(鵬)처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해러웨이가 “아웃사이더” 정체성으로서 사이보그 정체성을 수용하면 얻게 된다고 주장하는 엄청난 과학-기술적 자원이 바로 이것이다. 사이보그를 정체성으로 실천할 때, 서로 대립하고 차별적이었던 이원론을 초월하는 경지인 도추에 이를 수 있다.

**** 같은 책, p.78-9.

*****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파주: 사계절출판사, 2021) p.61. 각주 5. “통상 청각장애인으로서 정의되는 사람 가운데 수화언어를 제1의 언어로 쓰거나 정체성의 일부로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농인이라고 부른다. 농(聾)은 이제 한자어의 본래 뜻과 달리 감각적 결함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특정한 문화와 언어를 표현하는 말이 되었다. 영어에서는 대문자 ‘D’를 쓴 ‘Deaf’가 이러한 의미로 쓰인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제3조 제4호)라고 정의한다.”

***** ‘청인(聽人)’이라는 단어는 농인(聾人)과 달리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장애학에서는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농인과 반대되는 의미로,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청인이라고 지칭한다.

*****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파주: 사계절출판사, 2021) p.66-75.

Ⅲ. 맺는 글

지금까지 장자 철학을 현대 철학자인 하딩과 해러웨이의 이론과 비교해 보았다. 이로써 장자는 비록 근대 과학이 성립하기 전에 활동했던 철학자이지만, 그의 이론으로도 충분히 과학 지식과 기술을 비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장자의 이론에서 해러웨이가 제시한 과학-기술적 실천인 사이보그까지 도출해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비판도 있을 것 같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에 따르면 장자는 큰 앎(大知)을 이야기하고 이 앎에 따른 결과로서 도추라는 경지를 이야기하지,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자』 「덕충부(德充符)」를 보면 장자는 장애를 부정적인 것[=결함]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장애를 평등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덕(德)의 힘을 논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덕충부」에 나오는 발이 잘린 장애인 왕태(王骀)는 죽음(死)과 삶(生)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하늘(天)이 무너지고 땅(地)이 꺼지는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도의 근본(宗)을 지키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왕태는 세상을 모두 평등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만물을 모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덕충부」에서는 왕태 말고도 평등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덕이 충만한 여러 인물이 모두 장애인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자는 오히려 해러웨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아웃사이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자가 도추에 서서 보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사이보그를 제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차별적이었던 기존의 과학-기술은 인류의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사이보그가 되어 사이보그의 관점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꿈꾸어야 한다.

* 물론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을 뿐, 장자는 『장자』에서 좌망(坐忘)이나 심재(心齋) 등의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다만 필자는 장자가 장애인을 등장시키는 「덕충부」를 통해 그의 철학에서 사이보그적 실천을 확인할 수 있음을 제시하려 한다.

** 김윤경, 「『장자』의 ‘몸’ ‘장애’ 그리고 ‘자유’」,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제71호 (2021), p.13.

*** 『장자』 「덕충부(德充符)」 2. 死生亦大矣, 而不得與之變. 雖天地覆墜, 亦將不與之遺. [...] 而守其宗也.

**** 『장자』 「덕충부」 3. 自其同者視也, 萬物皆一也.

- 김정탁, 『장자 역주편』,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2
-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파주: 사계절출판사, 2021
- 안동림, 『莊子』, 서울: 현암사, 2005
- 임소연,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서울: 민음사, 2022
- 장하석, 『물은 H2O인가?』, 전대호 옮김, 파주: 김영사, 2021
- 정용선, 『장자의 해체적 사유』, 서울: 사회평론, 2011
- 다나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민경숙 옮김, 서울: 동문사, 2002
-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옮김, 서울: 책세상, 2019
- 샌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 옮김, 파주: 나남, 2010
- 김남이, 「신유물론(들)과 페미니즘, 그리고 버틀러 비판」, 도서출판여이연, 『여성이론』, 제47호 (2022)
- 김윤경, 「『장자』의 ‘몸’ ‘장애’ 그리고 ‘자유’」,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제71호 (2021)
- 이정우, 「도(道)의 지도리에 서다 -장자와 사이짓기의 사유-」,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제109집 (2022)

전쟁은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읽고

청덕 (od0725@naver.com)



▲ 도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 박은정 역, 2015, 문학동네)

이 책을 알게 된 건, 아직 신입생이었던 2019년의 봄이 끝나가던 무렵. 처음 들어 갔던 교지, 용봉교지에서 막 발걸음을 내딛던 때였다. 어떤 경우로 알게 된 건지는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학교의 교양수업에서 이 책에 대해 듣고, 편집실 책장에 꽂혀있던 책을 본 게 첫 만남이지 않을까. 책이 내게 온 것은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집실을 이사하면서다. 책장을 정리하면서 관심 있는 책은 가져가도 된다는 이야기에 가방에 넣었던 일. 그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지만, 결국 책을 마주한 것은 바로 4년의 세월이 지난 2023년의 여름에서다.

지구에서 가장 크게 일어난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은 많은 피해자를 낳았고, 또 많은

기. 이야기 속 그녀들은 특별히 강인하고 우수한 병사가 아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

전쟁은 언제나 남성의 시선에서 기록되었다. 싸우는 군인으로서, 전장의 병사로서 남성이 가지는 위상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책을 읽고서 전쟁은 군인만의 것이 아니고, 남성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 수 있었다, 전쟁하면 자연스레 떠올리는 이미지는 내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전쟁은 누구 하나의 것이 아니라는 걸, 전쟁 속 군인이 있으면, 전쟁 속 일반인이 있는 법이고, 남성이 있으면 여성이 있는 법이라는 것을. 여성의 눈으로 본 전쟁. 책에서 말해주는 익숙하지만 낯선 전쟁. 그 중요성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전쟁을 배울 때, 누가 승리했고, 패배했는지는 상세하게 배우지만, 그 속의 이야기, 전쟁 속 사람들의 이야기는 배우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거기에 전쟁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후의 이야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책을 읽고서, 책에서 그녀들을 만나고, 알게 되었다. 몰랐던 이야기들을 마주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한 번 경험한 순간 각인되는 게 있다. 이 책을 통해 각인된 이야기들이 내게 그렇다. 책을 통해 전쟁 속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을 알았고, 나아가 전쟁 바깥의 결과가 아닌, 전쟁 속 이야기의 중요성을 알았다. 이제껏 우리가 봐온 전쟁의 이야기는 남성의 시선이었으니까. 그 시선에서 비친 전쟁만을 알고, 그 외의 것들은 몰랐으니까.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전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여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춰졌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안다. 전쟁은 모두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치열했던 독소전쟁에서, 없는 형편에 병사들을 도와준 노부부. 다친 적군을 치료해 준 소녀 병사. 자신을 돌봐준 소련군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길 권총을 건넨 독일군까지. 그들 모두가 전쟁의 얼

굴을 하고 있다.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다. 21년 겨울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새해를 지나 22년의 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들은 소식은 러시아가 키이우에 진입했고, 무차별 공습으로 민간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를 몰아내고 있다는 것 등.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국한되어 있다. 전쟁 속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오직 전투의 과정과 결과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승리와 패배겠지만,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단 이유만으로 전쟁 속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히거나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가 전쟁의 승패로 전쟁 안의 사람들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때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 본 독후감은 네이버 블로그 <청덕의 독서기록장> '월간 독서' 코너의 독후감을 기고받아 편집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od0725>)

68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과장과 축소 없이 진실을 보자



생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과장과 축소 없이 진실을 보자

편집위원 회성 (chrisryu0816@gmail.com)

들어가기

요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前) 일본 총리를 만났다. 당시 윤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교도통신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하면서 환경단체와 여야 일각에서는 이를 비판하며 논란이 점화되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는 야당과 노동조합,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참여한 <윤석열 퇴진 운동>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까지 가세했다. 주 69시간제, 이태원 압사 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발언 실수 등 여러 차례 논란으로 야당과 유례없는 갈등을 겪고 있는 정부이기에 이번 논란은 점차 정략적인 목적, 즉 자기 당파의 지지와 타 정파를 향한 비난으로 나아갔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윤석열 정부가 동의한 것에 대한 규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위 사진은 포항의 한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 시위의 모습. [대경일보]

* 原発処理水、韓国で理解求める尹氏、海洋放出で菅前首相に表明 [교도통신, 23.03.29] (<https://nordot.app/1013743322445332480>)

그런데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근거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부풀려서는 안 된다. 현 상황을 보면, 마치 오염수가 당장 온 바다를 방사능 천지로 만들 것이라는 등의 과장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 그저 윤석열 대통령 개인 또는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반·비과학적 근거를 갖다 붙이는 무논리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움직임은 단순히 윤석열이 싫다는 진영논리를 불러오고 본질을 흐린다. 또한 오염수 방류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 중 사실이 아닌 것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슈의 키워드인 '삼중수소'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어떤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간략히 서술하려 한다.

삼중수소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삼중수소'다. 삼중수소란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다. 일반적으로 수소 원자의 핵은 단일한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삼중수소의 원자핵은 한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수소보다 3배 정도 무겁다. 삼중수소는 중성자가 많아 원자핵이 불안정해서 베타 붕괴를 하는데, 이때 에너지가 높은 전자의 흐름이 방출된다. 이것이 방사선의 일종인 베타선이다. 쉽게 말해,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내뿜는 원소라고 요약할 수 있다. 삼중수소는 자연에도 존재하는 원소이지만, 고농도로 피폭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이 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다핵종저거설비(ALPS)*를 이용해 방사선을 배출하는 물질들을 제거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가 외부피폭**에도 큰 영향이 없는 핵종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주)도쿄전력은 삼중수소가 다른 방사성 물질에 비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주장한다.

*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에서 만든 장치로, 삼중수소를 포함해 여러 종류의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알려진 장치.

** 방사선 치료나 핵폭탄과 같이 외부에 있는 방사선이 우리 몸을 통과하는 형태로 피폭되는 것.



▲ 삼중수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만든 캐릭터 '토리치우무'. [일본 부흥청]

그러나 티머씨 무쏘 교수(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생물학 전공)는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외부피폭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삼중수소가 일으키는 내부피폭**이 다른 어떤 핵종보다도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인간 세포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수치를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치로 조정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의 삼중수소 수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도 IAEA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방류수 속 삼중수소가 장기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미지수다. 로버트 리치먼드 교수(하와이대학교 케알로해양연구소장)는 "30년 이상 긴 기간에 걸쳐 방사성 핵종의 생물학적 축적과 분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서, "현재 그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삼중수소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긴 세월을 걸쳐 몸에 축적될 경우에도 안전하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

* Biological Consequences of Exposure to Radioactive Hydrogen (Tritium):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Literatur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3.04.27]

** 음식물에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을 때, 이를 섭취할 경우 핵종이 체내로 들어와 자리 잡거나 배출되는 것. '체내피폭'이라고도 한다.

*** 생물학자가 경고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속 삼중수소의 진실 [그린피스, 23.05.04]

**** IAEA '안전' 발표에도... 해외 전문가들 "일 오염수 생태 영향 평가 미흡" [경향신문, 23.07.0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재와 미래에 끼치는 영향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상관없으며 한국이나 중국 원전에서도 이미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의 오염수 배출이 특별하거나 현재 바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 이는 방사능 방류를 결정하고 총 책임자가 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일을 정상적인 원전에서 배출하는 일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이번 방류는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된 상태에서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당장' '커다란' 문제를 가져온다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미 IAEA와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원전 관계 당국에서 확인한 결과, 일본의 오염수 배출 계획이 다른 국가의 원전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안전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소량의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낮고 특히 삼중수소는 상대적으로 약한 베타 방사선이라, 그 자체로는 너무 약해 피부를 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당장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환경운동가들이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도 대부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당장'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오토 사 시게요시 교수(도쿄대학 대기해양연구소)는 방사성 핵종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류에 지속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삼중수소 외에 반감기가 굉장히 긴 다른 핵종 물질들(세슘137, 스트론튬90 등) 역시 장기적으로는 바다와 인체에 해로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괜찮다" 아소 다로 또 논란 발언 [뉴스1, 21.05.27]

** 미국·캐나다 원자력 당국 "삼중수소 '소량 방출' 위험성 낮아" [VOA, 23.07.12]

***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도쿄전력의 지나친 비리와 정보 비공개로 문제 삼으며 일본과 도쿄전력이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 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아직도 일각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외 과학자 반응, 피해없다 vs 정보불충분 [대덕넷, 23.06.26]

***** [팩트체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적·과학적으로 문제없다? [매일경제, 23.04.07]

전남 어민들 ▶
의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KBS 뉴스]



이처럼 오염수가 인간과 환경에 얼마나 치명적일지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페렝 달노키 베레스 교수(미들베리 국제대학원)는 '현재 기후위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장기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과장과 축소 없이 진실로

상술했듯,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입장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직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현재 끼치고 있는 영향과 미래에 끼칠 영향, ALPS의 정화 능력, 국제관계 등 다양한 지점에서 의견은 엇갈린다. 인간의 인식 영역과 지식은 제한적이기에, 쟁점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다. 지금껏 연구한 사실 그대로를 바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염수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까지 축소하거나 '괴담'이라는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 동시에, 지나치게 위험을 과장하고 재생산하는 것 역시 멈춰야 한다.

근거 없는 소문과 위험에 대한 과장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 토론을 가로막는다. 폐쇄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반일 선동으로 원한을 불러일으키고 대외 관계를 어지럽힌다. 심지어 어민들의 생계까지 크게 위협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인 베레스 교수 역시, 이

번 문제를 지나치게 부풀려서 대중을 선동하는 일에 반대했다.

우리는 포퓰리즘과 진영논리를 동원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논쟁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주장이 근거가 탄탄하고 가장 타당한지, 어떤 방식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어떤 구호와 실천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당동별이할 때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 괴담? 미신?...후쿠시마 오염수 7가지 궁금증, 해외 과학자가 답하다 [경향신문, 23.07.30]

75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과 문제점 - 공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정부

84 학생에게는 '스승'이 필요하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침해,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일까



교육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과 문제점

- 공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정부

수습위원 시윤 (juseeyooni@naver.com)

1.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2023년 6월 15일, 대한민국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공약, 교육부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이하 수능)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 타파까지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무엇일까?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의 행위와 발언을 알 필요가 있다.

6/15	윤석열 대통령: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 문항을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니냐."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 카르텔인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
6/16	대통령실: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윤, 3월부터 '공정 수능'(공정한 변별력을 갖춘 수능) 지시.... 평가원 감사" 윤석열 대통령: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교육부 대입국장 6개월 만에 교체, 6월 모의고사 출제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문책 인사 정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실시 보도 대통령실: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의 카르텔은 교육 질서의 왜곡이자 학생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깨는 것"
6/18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대혼란에 빠지는 것은 그동안 사교육으로 이익을 취해 온 이들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계속 불안해하길 바라는 이들"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사교육비는 가게 가져분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
6/19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책임으로 전격 사임 이주호 교육부 장관: "수능의 교육과정 밖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원인" 정부, 여당 당정 협의회: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6/20	이태규 의원: "문재인 정부서, 사교육비 50% 급등", "지난 정부가 방치한 문제, 학원만 배 불리는 작금의 상황"
6/21	한덕수 총리: "수능 킬러 문항 푸느라 학원 가는 건 정말 아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수능 강사 100억 · 200억 연 수입, 범죄이고 사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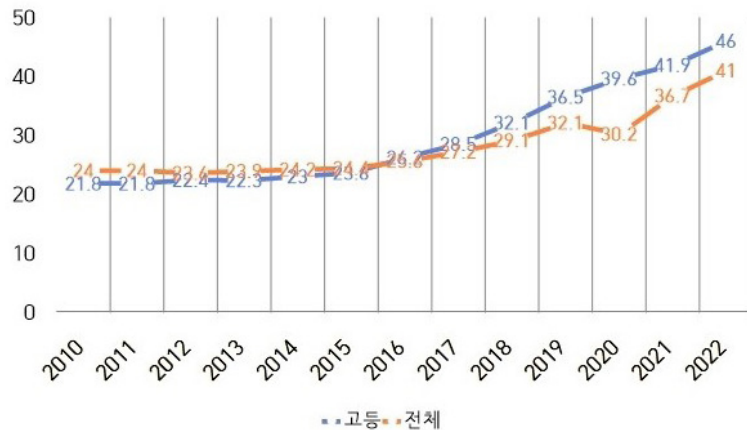
이런 발언과 행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을 유추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 ① 사교육비 지출이 문재인 정권 때 많이 증가했다. 이것은 문제다.
- ②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수능이 어렵기 때문이다
- ③ 수능이 어려운 이유는 공교육 범위 밖에 있는 킬러 문항 때문이다.
- ④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킬러 문항'을 없애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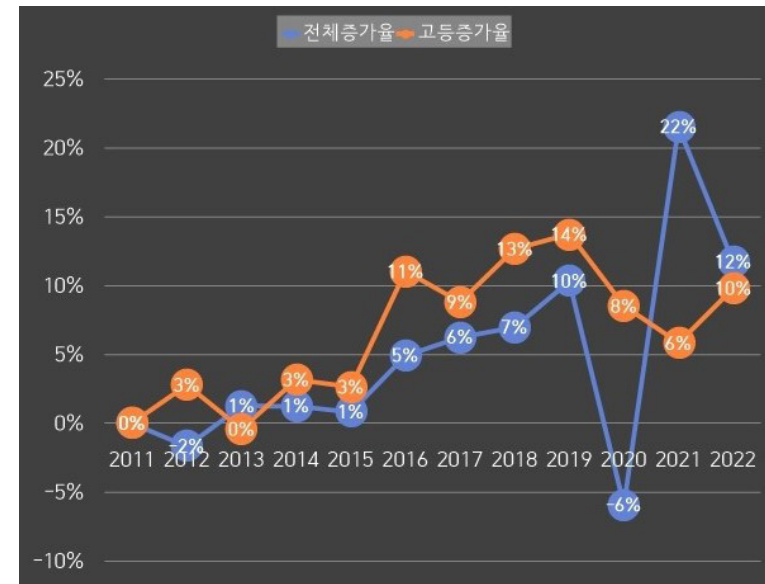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는 전방위적인 학원 세무조사 등,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은 '사교육을 잡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관이 올바른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사교육을 잡겠다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윤석열 정부의 인식 FACT CHECK와 사교육, 그리고 공교육

FACT CHECK 1. '사교육 지출이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증가했나?'



▲ 우상향하고 있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단위: 만 원). [국가지표체계]



◀ 전년 대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국가지표체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집계한 자료. 수능 응시자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간조선]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사교육비가 문제인 정부서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과연 사실일까? 2023년 3월 국가지표체계에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2년 기준 고등학생은 46만 원, 중학생은 43.8만 원, 초등학생은 37.2만 원이다. 전년 대비 전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대체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문제인 정권 이후 증가율이 낮게는 6%, 많게는 14%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사교육비 규모도 마찬가지로 상승 중이다. 2023학년도 수능 응시자가 감소했지만 2022년 사교육비 규모는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즉 '사교육비 지출이 문제인 정부 때 많이 증가했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FACT CHECK 2.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수능이 어렵기 때문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 문항을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했고 비문학, 융합형 문제는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정부는 ‘수능이 어렵다’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게 킬러 문항을 없애야 한다는 말은 어려운 수능을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수능을 쉬운 수능인 물수능과 어려운 수능인 불수능으로 분류한다. 모 유명 학원의 임성호 대표*에 따르면, 표준점수** 130점 내외면 물수능, 표준점수 140점 후반대이면 불수능이라 볼 수 있다.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를 보면 매년 수능이 어려웠던 것은 아니다. 수능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를 보면 2014년, 2015년, 2017년에는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고, 2010년과 2018년에는 매우 어렵게 나왔다. 반면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을 보면 감소했던 해는 2012년과 2020년뿐이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수험생들이 학원에 가기 어려웠다는 것을 고려하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꾸준히 상승했다. 결론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은 수능 난이도와 무관하게 상승하고 있다.

* 1996년부터 학원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종로학원, 종로학력평가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으며, 언론사 고교평가 자문, 교육방송과 교육 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표준점수는 응시생이 받은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다. 원점수가 같더라도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다면 평균이 낮아져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게 나온다. 반면 시험이 쉽게 출제된다면 평균이 높아져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게 나오게 된다.

2010~20학년도 ▶
수능 국어 및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년도	언어(국어)	수리 가형	수리 나형
2010	140	153	147
2011	137	139	138
2012	127	139	142

년도	국어 A형	국어 B형	수학 A형	수학 B형
2013	132	131	143	138
2014	132	139	131	125
2015	134	136	139	127

년도	국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
2016	139	130	137
2017	134	130	135
2018	150	133	139
2019	140	134	149
2020	144	137	137

FACT CHECK 3. '수능이 어려운 이유는 공교육 범위 밖에 있는 킬러 문항 때문이다?'

과목	문제	과목	문제
국어	2022학년도 수능 8번	수학	2023학년도 수능 확률과통계 30번
국어	2022학년도 수능 13번	수학	2023학년도 수능 공통 22번
국어	2022학년도 수능 15번	수학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미적분 30번
국어	2023학년도 수능 15번	수학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공통 22번
국어	2023학년도 수능 17번	수학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공통 21번
국어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14번	영어	2022학년도 수능 공통 38번
국어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33번	영어	2022학년도 수능 공통 21번
수학	2021학년도 수능 나형 30번	영어	2023학년도 수능 공통 37번
수학	2022학년도 수능 기하 30번	영어	2023학년도 수능 공통 34번
수학	2022학년도 수능 미적분 29번	영어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공통 34번
수학	2023학년도 수능 미적분 30번	영어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33번

위 표에 제시된 문항들은 교육부가 지적하는 킬러 문항 22개다.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들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이므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 22개 문제를 두고 "일반적인 공교육 학습만으로 이러한 풀이 방법을 생각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풀기 어려운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문항들이 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공교육 범위 내에서 풀 수 있는 문항들이다. 업스터디(입시학원) 김호창 대

표는 "수능은 원래부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걸 배제해 왔다"라고 말했고,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은 교육과정에 근거해 왔다"라고 말했다. 또 한 대형 입시 학원 관계자는 교육부가 뽑은 킬러 문항이 '이전 기출 문제에서도 자주 보던 유형이다'라고 말했다. 즉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처음부터 없었다. 국어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고, 수학 문제는 공교육 범위 안에 있는 개념과 공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며, 영어 문제도 공교육 범위 밖의 단어들은 주석으로 의미를 알려준다. 만약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문 안에 정답이 없고 배경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국어 문제 혹은 대학 수학을 배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수학 문제, 공교육 범위를 벗어나는 영어단어가 있는 영어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지금까지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사교육 잡기'가 교육개혁의 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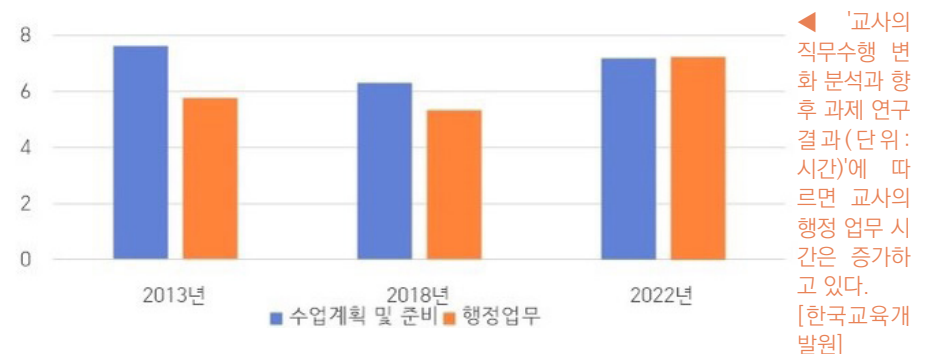
2023년 6월 22일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잡고,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바로 잡겠다"라며 '공교육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 사교육을 규제하는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두환 정권 때에는 '과외 금지 조치', 이명박 정부 때에는 '학원 심야 교습 제한'과 박근혜 정부 때에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실행했다. 문재인 정권은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안타깝게도 효과가 없었다. 필자는 그 이유가 잘못된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들이 공교육 개혁을 목적으로 사교육 규제에 집중한 것을 보면, 사교육이 부실한 공교육을 만들었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잘못되었다. 사실 사교육은 작용이 아니라, 부실한 공교육에 대한 반작용이다. 즉 부실한 공교육이 사교육을 받게 만드는 것이다.

사교육을 필요하게 만드는 공교육의 2가지 문제점

공교육에는 2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공교육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은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어야 한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기초부터 공부해야 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심화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학교 시스템은 학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획일화된 수업을 듣게 한다. 반면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싱가포르, 영국, 핀란드는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는 교과목별로 필수코스, 심화코스, 응용코스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따라 코스를 선택한다. 미국은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수업을 학교에서 제공하고, 학생은 자기 수준에 따라 수업을 신청한다. 싱가포르, 영국도 이와 비슷하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은 수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자신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해당 국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이다.

두 번째는 학생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 업무이다. 201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실태조사'에서 교사 약 50%가 교육활동을 하는데 '과중한 행정업무'가 가장 힘들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3~2022년 동안 '수업계획 및 준비' 시간과 '행정 업무' 시간이 거의 비슷해졌다. 이 조사들을 분석해보면, 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에 집중할 시간이 과도한 행정 업무로 인해 증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도한 행정 업무로 수업계획 및 준비 시간이 부족해지고, 이것은 결국 학교 수업의 질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공정옥 부천 원종초 교사는 교실 환경 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를 두고 교사가 행정 업무가 아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공교육 강화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문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교육은 작용이 아니라 입시제도와 부실한 공교육에 대한 반작용이다. 과거 전두환 정권부터 현재 윤석열 정권까지 정부는 그 반작용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아무리 반작용을 0으로 만들려고 해도, 작용이 0이 아닌 이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과외 금지 조치', '학원 심야 수업 금지', '공교육정상화법' 모두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실패한 원인이다.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작용을 줄이는 것, 그것은 곧 부실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 공교육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 교무행정 업무 전담 직원을 많이 고용함으로써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줄이는 것,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그 교사의 강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학급 인원 감축을 통해 개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것,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확대하는 것 등. 어떤 것이든 소용없는 사교육 규제만 아니라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3.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윤석열 정부

'사교육을 잡겠다'를 목표로 한 교육개혁은 현실과 달랐다. 사교육비 지출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수능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은 공교육 범위 밖에 있다'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졌다. 이는 작용(부실한 공교육과 수능 제도)과 반작용(사교육)을 혼동한 결과이다. 물론 정부의 선의는 인정하겠다. 사교육이 아니면 수능을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매월 40만 원 이상의 돈을 써야 하는 현실이다. 통상적으로 매월 4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선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는 선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막스 베버가 말한 것처럼 정치인은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 현 정부의 수능 정책은 단기적으로 올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선한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통해 공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다.

참고문헌

- "교수도 못 푸는데"...교육부가 찍은 22개 '킬러문항'의 정체 [머니투데이, 23.06.2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2613123230830>
-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고인 '26조원'...전년 대비 10.8% 증가 [UNN, 23.03.07]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2995>
- 사교육공화국 대한민국 1명당 41만원? '생각보다 적은데' [노컷뉴스, 23.03.18]
<https://www.nocutnews.co.kr/news/5911803>
- 전두환 '과외금지' 이후 40년... 사교육 전쟁 '전패'한 정부 [중앙일보, 21.11.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6463#home>
- 수능 출제 '교육평가원' 감사 실시 [조선일보, 23.06.17]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6/17/CRUAA6KI75HMRAUANU6VYYWI3U/>
- 총리실이 카르텔 조사한다고 수능 출제위원 자료까지 가져가[한겨레, 23.07.19]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0774.html>
- 국회 '공교육 정상화 특위' 구성... "이재명도 킬러문항 배제 공약" [한겨레, 23.06.2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97021.html>
- 윤대통령 "교과 벗어난 수능 배제" 발언, 교육계 일파만파 [부산일보, 23.06.18]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61818565598792>
- 교육개혁 포문 연 윤... 26조 사교육 겨눴다. [서울경제, 23.06.16]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VMTRYZ3>
- 올해는 몰수능? 불수능? '수능 난이도 변천사' 보니 [임성호의 입시지계] [이코노미스트, 23.07.01]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6270031>
- "文 정부서 사교육비 50% 급등"...尹 정부 대책은? [교육플러스, 23.06.20]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7>
- 올바른 공교육 개선없이 사교육 근절은 없다. [충청매일, 23.06.25]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1950>
- 선생님들이 교원업무'정상화'를 말하게 된 이유 [참여와 혁신, 22.01.06]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72>
- 고교학점제 도대체 뭐길래?...미국·핀란드 등 이미 도입 중 [아주경제, 21.02.08]
<https://www.ajunews.com/view/20210218082827604>
- "교사·학생·학부모 한자리에 모여 3년 시간표 짭니다" [한겨레, 19.09.1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09783>
- 수능 어려우면 처벌 각오...대통령 '의심'에 교육평가원 전격 감사 [한겨레, 23.06.1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96340.html>
-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 교육개혁을 말하다』. 에듀시티. 2017.
- 조은정, 박혜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교육 살아남기』. 리상. 2021.

학생에게는 '스승'이 필요하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침해,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일까

수습위원 미르 (kangmiru05@naver.com)

변해버린 학교, 요즘 학생들은?

우리의 학창 시절을 기억하는가? 벌써 10년, 20년 전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 시절에는, 가방 속 필수품이 몇 가지 있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일기를 쓰면, 다음 날 선생님의 답글이 달려 돌아오던 일기장, 숙제가 적힌 알림장, 받아쓰기 공책 등. 우리에게 손 글씨를 쓸 기회가 수도 없이 주어졌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해버렸다.

6월 중순, 한 SNS에 '요즘 아이들이 맞춤법 상상 초월로 모르는 이유'로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글에서 "1~2학년들 받아쓰기와 경필 쓰기*, 알림장이랑 일기 쓰는 걸 아동학대로 (학부모들이) 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알림장은 인쇄해주거나 단톡방 등에 올린다. 이런 일 때문에 아이들의 글씨체는 엉망이 되었고, 맞춤법도 지키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글쓰기뿐만이 아니다. 칭찬 스티커, 청소 등도 이제는 아동학대의 사례가 되었다. 칠판에 이름을 적거나 학생을 특정해 꾸중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올해,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칭찬 스티커를 부여하는 활동을 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학부모는 '칭찬 스티커를 받지 못한 아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이것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전주의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물병을 찌그러뜨리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에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였다. 이 신고가 기소유예** 판결을 받자, 학부모는

* 끝부분이 딱딱한 종류의 필기구를 이용해 글씨를 정성 들여 바르게 쓰는 것.

**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수업 활동에서 학생들이 까치발로 걷게 했다면 다시 교사를 신고했다. 또한 "만 7세인 아이에게 빨간색이 가진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청소를 시켰다. 그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라 말하며 신고한 교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했다.

이처럼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교사의 수업 활동과 생활지도가, 최근에는 아동학대의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학생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사를 폭행하거나 위협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도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라며 교사를 업신여기고 있다. 실제로 한 학생이 교사를 목공 톱으로 위협하고 던지기까지 하면서도, "제가 지금 당장 나가도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럼, 저 나갈게요."라고 발언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은 뉴스 채널에 업로드되었다. 영상 속에서 다른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 중 교사에게 욕을 하든, 휴대전화를 하든, 우리는 녹음기처럼 가만히 수업만 하다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무너지는 교권과 궁지에 몰린 교사들

교권이란, 작게는 교원이 교육할 권리와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권위만을, 크게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까지를 포함한다.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한 요즘, 교육하고, 받을 권리는커녕 교사라는 한 사람의 인권마저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자신의 반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학교 측에서 조사한 결과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 두 명도 해당 학생에게 폭언을 당했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다. 그렇게 세 명의 교사는 교권보호 위원회에 참석했다. 병가 중이던 담임교사는 '다시 오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와야 뭐라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며 울음을 삼켰다. 심지어는 가해 학생에게 수시로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어왔다고 말했다.

폭행과 폭언만으로 끝났으면 차라리 다행이다. 서울의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현재* 경위는 이렇다. 학급의 한 학생이 연필을 가지고 뒷자리 학생을 긁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몇 번이고 전화했다고 한다. 큰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 교사는 지난해부터 약 10차례나 학교에 상담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이 일던 와중, 특히 비슷한 고통을 공유하는 교사들은 그동안의 울분을 터뜨리며 해당 교사의 사망을 애도했다. 그 와중에 학교 및 일부 학부모 측에서는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화환과 추모행위가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쪽지들. [중앙일보]

이전에도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제 와 위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우스울 정도이다. 2022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지금 찾아봐도 보도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수업 중 욕설을 한 아이를 꾸중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것 정도이다. 겨우 밝혀진 위 사건에도 공감하고 울분을 토하는 교사들이 그리 많은데, 과연 우리가 모르는 진실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교사가 고통을 받고 있었을까 싶다.

* 2023.07.30.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다면 교사들의 권리는 왜 이렇게까지 깃밟히게 되었을까? 가장 큰 원인은 교사-학생 간의 관계 변화에 있다. 과거 교사와 학생은 사제 관계로서, 교사는 '가르치는' 위치에, 학생은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스승'의 정의가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 교사들이 학생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필요에 따라 꾸중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종업원'과 '고객'의 관계로 변해버렸다. 교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었고, 학생과 학부모는 제공받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장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그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눈치를 봐야 하고,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법률에도 문제가 있다. 2014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하지만 교사의 생활지도 중 어디부터 아동학대이고 어디까지 정당한 교육인지, 그 기준은 너무나도 불분명하다. 애당초 이는 사제 관계처럼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무어라 명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 역시 없지 않다. 2021년 11월,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교실을 찾아왔다. 학부모는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것도 모자라 교사의 목살을 잡아뜯다가 상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상황이 불리해지자 학부모는 '교사가 내 아이에게 폭력적인 학생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라고 주장하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의 변호사가 학부모에게 무고성 신고를 권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렇게 되면 교사는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증언은 물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 교사뿐만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며 여러 사람과 접촉하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

* 이는 과거의 체벌을 옹호하는 것과는 다르다. 학생의 문제 행동 교정·교육이 목적이 되는 훈육(訓育)과 벌을 내리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체벌(體罰)은 구분해야 한다.

우는 이른바 '사회화' 과정을 겪는다. 그 사회화 방법 중 한 가지가 바로 교사들의 생활지도이다. 하지만 그런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사들의 수업이 '녹음기'처럼 일방적인 지식 전달로 축소된다면, 학생들은 사회화 기회를 잃게 된다. 그렇게 자란 학생들은 타인의 인권을 경시하게 될 것이다. 교사에게 향하던 폭언과 폭행이, 이후 사회에서 또 다른 이를 향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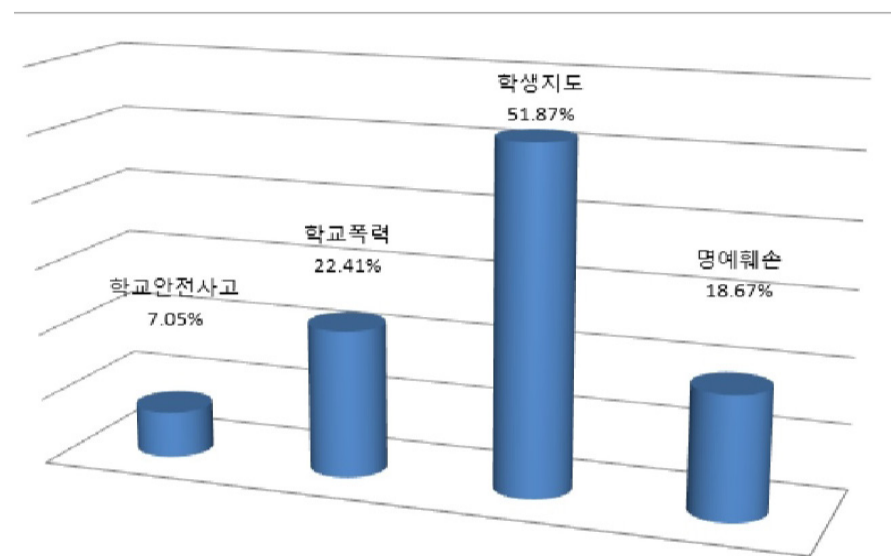
이를 예방하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교사를 지키는 법령이 필요하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안에 포함되는 활동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으로 인정·지원해줘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학교폭력위원회 혹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을 철저히 구분할 필요 역시 있다.

이제는 다시 변해야 할 때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1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들을 법정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생활지도라면 범죄로 여기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교권 침해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될 순 없다. 면책권 부여는 단순히 교사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뿐, 당장 교사의 실직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한 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면, 현행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에 따라 즉시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를 해제당한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기 위함이다. 실직뿐만이 아니다. 경찰 조사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교사에게는 이미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사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 교사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악성 민원과 이를 이용한 협박이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생활지도 조항을 신설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훈육·훈계·과제 부여·상담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교사

의 생활지도에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신고를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교총')에서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과 유형을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 5월 25일에 입법 예고되었기에 아직은 그 효과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면책권 부여와 달리 교사의 교육활동 자체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대해 봐도 좋을 듯싶다.



▲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피해 원인별 현황. 교권침해의 주요인인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에 의한 피해 원인은 '학생지도'가 가장 많다. 그만큼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중요하다. [교원단체총연합회]

동요 <스승의 은혜>에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라는 가사가 나온다. 하지만 더 이상 '스승'이 아니게 되어버린 현 교사들의 영향력은 우러러 보아기는커녕 완전히 추락해 버렸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갑을이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사의 역할,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고, 둘의 관계가 다시 가르침을 주고받는 '사제'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 전반부 - [MBC PD수첩, 23.03.07]
<https://www.youtube.com/watch?v=hjn2e0vCM6Q>
- 학생한테 칭찬 스티커 안줬다고 '아동학대'라니...[민원폭탄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문화일보, 23.06.28]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2801070121043001>
- 교사 생활지도에 지시·훈육 조치 명시 ..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 [에듀프레스, 23.05.25]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4>
-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경향신문, 23.05.23]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 담임 폭행한 초6, 다른 교사에 폭언...부모는 "할 말 없다" [SBS, 23.07.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75658
- [서이초 사건] 분노한 교사들 "기분 나쁘면 무조건 아동학대라니..." [노컷뉴스, 23.07.21]
<https://www.nocutnews.co.kr/news/5981233>
- '서이초 사건' 계기로...교사들, 학부모 '악성 민원' 사례 폭로 [JTBC, 23.07.24]
<https://www.youtube.com/watch?v=GRTBLtrWjqs>

용봉편집위원회 (jnuybpres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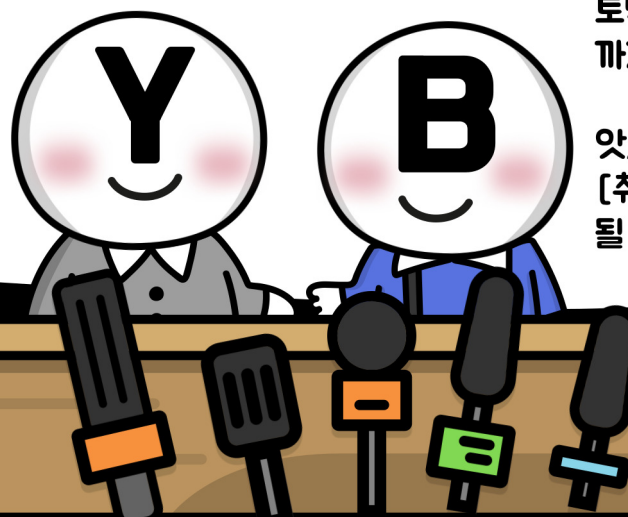
취재파일 Y

여기 소중한 이야기들은 우리와 직접 연결되는 것일 수도,
'나'와는 아무 상관 없는, 별일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일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유별난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도 아니며,
내가 몰랐다고 해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취재파일 Y]는 캠퍼스의 울타리를 넘나들며
용봉편집위원회가 취재한 다양한 내용을 정리한 섹션입니다.
우리과 우리 주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발로 뛰며 빠짐없이 담아내려 했습니다.

토막기사부터 인터뷰와 발언문
까지 형식은 다양합니다.

앗, 그리고 독자 여러분 누구나
[취재파일 Y]의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기 기자회견 및 촛불집회

작년 2월 24일, 포성이 울리며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것도 유럽 한복판에서 말이다. 전문가들과 수많은 이들은 이 전쟁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라 예측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군사력 세계 22위 국가가 2위 국가와 맞선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기 때문이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역시 빠른 승리를 원했다. 그러나 결과는 사람들의 예측도, 푸틴의 소망도 모두 빗나갔다. 조국을 지키고자 전선으로 뛰어든 우크라이나인들의 강인한 정신력은 무수히 빗발치는 미사일 속에서도 러시아의 전면적인 공격을 막아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다. 4만5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와 6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평범한 시민들의 보금자리와 사회기반시설은 폐허가 되었다.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한 이후 일어난 비극은 이 지면에 모두 담을 수 없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민중은 매일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는 즉각 침공 행위를 멈춰야 한다.

우리는 이들의 평화와 생존을 염원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맞이 침공 중단 평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로써 러시아군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고 반전 평화의 기치를 높이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자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지 딱 1년이 되는 2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 정동교회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반전 단체, 노동조합, 언론, 페미니스트 단체 등 40여 시민사회 조직과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침공 중단 평화 촉구 기자회견

〈러시아는 즉각 군사행위를 멈추고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라!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개시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 뒤로 1년이 지났다. 이 1년은 우크라이나 민중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한 해였다. 절대 정당화할 수 없는 이 침공으로 인해 이미 450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했고, 러시아군의 폭격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이 폐허로 변했다. 살아남은 이들도 대대적인 기간시설 파괴로 인해 전기와 물, 온기 없이 겨울을 나고 있으며, 매일 다양한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민중도 전쟁이 초래한 식량 위기와 경제 위기로 고통받았다.

침공 1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행위에 항의하며, 이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에 연대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러시아는 즉각 군사행동을 멈추고 철군하라!

우크라이나 민중과 전 세계를 고통에 빠뜨린 이 전쟁의 가장 큰 책임은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에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UN 회원국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 존중, 무력에 의한 위협 금지를 명기한 UN 헌장을 정면으로 짓밟은 폭거다. 우리는 평화를 외치는 전 세계 시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가 조건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철군할 것을 요구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떠나면 전쟁은 끝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일컬으며, 단 며칠 안에 키이우를 장악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자만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침공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민중의 대대적인 저항에 맞닥뜨렸다. 푸틴이 기대했던 '러시아계 주민의 환영' 같은 것은 없었다. 러시아군은 한 달 만에 북부 전선에서 철수했고, 러시아군이 부차를 비롯한 북부 지역들에서 저지른 살인, 집단학살, 성폭력 등 전쟁범죄의 참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UN 인권위원회의 독립조

사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의 책임 대부분은 러시아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러시아가 침략을 멈추면 이러한 범죄도, 전쟁도 바로 끝날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를 기만하는 거짓 주장과 위협을 멈춰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항상 러시아 민족의 일부”였으며 침공을 정당화해 왔다. 침공 1주년을 앞두고 한 2월 21일 국정연설에서도 “나치의 위협”, “우크라이나의 생물무기와 핵무기”를 운운하며 “진실은 우리 편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년간 발생한 러시아군 사상자가 이미 18만 명 이상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봄의 새로운 대공세를 예고하고 미국과의 핵군축조약인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웃나라 벨라루스까지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야욕으로, 벨라루스 민중의 생명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러한 러시아의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실체를 가진 주권국가로 인정받아 왔다. 침공 직후부터 국제사회의 압도적 다수는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철군과 전쟁범죄 중단을 요구했다. 2022년 3월 2일 열린 UN 긴급총회는 141개국의 찬성으로,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정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3월 24일에는 우크라이나 내 인도적 위기에 대해 러시아가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결의가 14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10월 12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 병합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143개국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에 연대한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민중은 침략의 단순한 희생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힘껏 저항해왔다. 이 저항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전 세계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모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었다.

다른 주권국가를 침공하여 영토를 병합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세계 각지에서 비슷한 군사적 모험이 늘어나고, 현존 국제질서의 붕괴와 군비증강, 폭력의 발효가 가속할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자결권과 존엄성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은 세계 전체에 중요하다. 이번 주, 세계 각국의 시민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고 우

크라이나 민중과 연대하는 행동을 진행한다. 우리는 이에 함께하며,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에게 최대한의 연대를 보낸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 러시아군은 즉각 군사행위를 멈추고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라!
-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에 연대한다!

2023년 2월 24일



▲ 한국을 포함한 각국 세계 시민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 막바지에는 전쟁으로 희생된 아이들을 추모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이후 오후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규탄 세계시민 평화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 이 집회에서는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에 연대하는 평화 시민들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그중 《용봉교지》 구성원의 발언문을 실어본다.

이슬 수습위원 ▶
(現. 편집위원)이
세계시민 연대 발
언을 하고 있다.



[용봉편집위원회 연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학생 자치 언론 용봉편집위원회 수습위원 솔입니다.

《용봉교지》는 작년 한 해 동안 학교에서 사진전과 강연을 열기도 하고, 평화 부스를 차리거나 교지를 발간해서, 학우들에게 이 전쟁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음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트리를 만들었는데요, 한 학우분이 트리에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평화와 삶과 희망을 앗아가는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저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명백한 러시아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침공 1주년을 맞아, 저희 광주에서도, 그리고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도 평화의 목소리를 보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전 오늘, 러시아군 탱크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러시아군은 민간인을 향해 포탄을 퍼부었고, 침공 첫날부터 이미 최소 45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비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로는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러시아는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파괴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침략은 우크라이나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주변국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전 세계의 권위주의 독재자들은 푸틴과 손을 잡으려 합니다.

당연하게도, 푸틴과 러시아가 벌인 전쟁은 푸틴과 러시아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과 그 지지자들의 주장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토가 러시아를 향해 계속 동진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안보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맞섰다는 주장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나도 피해자야”라고 도리어 고함을 지르는 꼴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가해자를 대변할 순 없습니다. 푸틴은 가장 노골적인 방식으로 규칙을 어겼습니다.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을 잔혹하게 파괴하고, 적대와 불화를 계속해서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부당하고 무책임한 가해자의 논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길어진다고 평화의 깃발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지치니까 그만하자!” 이 말이 오히려 푸틴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일 겁니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정의의 위해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가치들과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러시아에 즉각적인 철수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릴레이 발언을 듣기 위해 운집한 시민과 기자들.



박승희 선배의 뜻을 이어간다는 건

- 박승희 열사 32주기 추모제

5월이 되면 학교뿐 아니라 광주 전체가 분주하다.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떠난 민주화 열사들을 추도하고 유족에 애도를 표하는 광주의 5월이다. 이후 90년대 열사 정국이 있었다. 당시에도 수많은 열사들이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불꽃이 되었다. 우리 《용봉교지》 역시 잊어서 안 되는, 잊을 수 없는, 또 한 분의 열사가 계신다. 바로 박승희 선배다.

박승희 선배는 1990년 우리대학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입학하시고, 《용봉교지》 수습위원으로 활동하셨다. 다른 선배들은 박승희 선배가 언제나 진지한 자세로 활동에 임하며 지식인으로서 고민을 쏟아내셨다고 회고했다. 선배는 특히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러 실천과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1991년 4월 26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의 폭행으로 돌아가신 후, 열사를 추모하고 노태우 정권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박승희 선배는 4월 29일 2시, 전남대에서 개최한 ‘강경대 살인만행 규탄 및 살인정권 폭력정권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2만 학우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3시경 대학 본부(용봉관) 뒤쪽에서 분신 항거하셨다. 선배의 분신은, 강경대 열사의 죽음이 1991년 5월 투쟁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 선배는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어가야 할 정치는 무엇일까? 선배가 떠난 32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었나?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할 소중한 질문을 남겨주신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와 김태현 사무국장님께 본지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다음은 5월 19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진행된 '겨레의 딸! 자주의 불꽃! 박승희 열사 추모제'에 참여해 발언한 내용이다.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용봉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 이형호입니다.

오늘 박승희 선배 열사의 추모제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선배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봉교지》는 전남대 2만 학우의 자주적 이해에 기반해 사회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참여를 이끄는 언론조직입니다. 저희는 인권 의식과 역강부약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50년간 주체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강령이자, 박승희 선배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의제의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을 발굴해 매 학기 교지로 내용을 풀어내고 학우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박승희 선배께서는 《용봉교지》에서 항상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고민하며 학습을 넘어 실천으로 세상을 마주하고자 하셨습니다. 박승희 열사께서 저희 곁을 떠난 지 한 세대가 지났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폭력은 만연하고 고통받으며 여전히 소외된 이들이 많습니다.

박승희 선배가 생각하신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박승희 열사를 이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하겠습니다. 박승희 선배께 부끄럽지 않은 후배로 살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승희 열사 32주기 추모상.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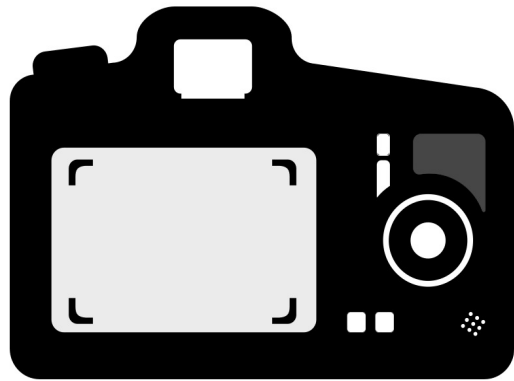


◀ 박승희 열사의 어머니(이양순 님)와 열사의 남동생(박선경 님)이 추모제 참가자들에 인사를 올리고 있는 모습.

박승희 열사의 ▶
악력을 소개하고
있는 이형호 편집장. [박승희정신
계승사업회]



◀ 이형호 음악 활동가는 자작곡 "거리
에 누워",
"내 몸이 들린
날"로 추모 공
연을 했다.
[박승희정신
계승사업회]



「 디 카 시 」

디카시?

SNS 뉴미디어 시대에 즈음하여 문학 장르 간 또는 문학과 타 장르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실험적인 시로 2000년대 초 처음 떠오른 장르입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날시)을 순간 포착해 그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하는 시로, 종이책을 넘어 쌍방향 소통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나무의 속삭임

정하



보아라 그대
얼마나 많은 가지를 뺐었던가
얼마나 작은 뿌리를 내렸던가

초록빛 잎사귀는
찰나의 영광일 뿐

"참"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참"입니다.
("참"의 다양한 뜻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참"과 연관된 수필, 소설, 시, 논문,
낙서, 일기, 만화, 일러스트, 캐리커처...
펜과 종으로 교지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보내주세요!
당선작 출판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기한〉

2023년 11월 30일(목)

〈응모〉

인스타그램DM @yb_press
이메일 jnuybpress@gmail.com

〈문의〉

010 - 9440 - 7831 (편집위원)

참1

[명사] 1.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
[명사] 2. 〈철학〉 이치 논리에서, 진릿값의 하나. 명제가 진리인 것.
[부사] 3.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과연.
[유의어] 과연1, 정말1, 정말로

참3

[명사] 1. 일을 하다가 일정하게 잠시 쉬는 동안.
[명사] 2. 일을 시작하여서 일정하게 쉬는 때까지의 사이.
[의존명사] 3. 무엇을 하는 경우나 때.
[의존명사] 4. 무엇을 할 생각이나 의향.

참9(懺)

[명사]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깨닫고 깊이 뉘우침.
[유의어] 뉘우침, 반성1, 후회1

참7

[명사] 〈방언〉 아침과 점심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의 끼니때. 강원, 경기, 경북, 전남 지방의 방언.

표에서 아래 문제의 답을
지우면 정답이 나타납니다!
정답을 맞힌 분께
1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드려요!

〈기한〉

2023년 11월 30일(목)

〈보내실 곳〉

인스타그램DM @yb_press
이메일 jnuybpress@gmail.com

정답과 함께 **상품을 받으실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체	망	중	오	수	문	자
삶	점	락	계	내	의	중
항	중	공	이	러	학	사
리	교	성	회	교	회	전
제	나	락	소	하	르	삼
국	내	킬	적	정	고	국
관	화	유	성	권	여	사

-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가 나눌 수 없는 하나이며, 합법 정부는 중국 정부 하나뿐이라는 주장을 '000 00'이라고 한다.
- 1945년 항일전쟁이 끝난 후 중국 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
-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란 히잡 시위의 구호는 "00, 0, 00"이다.
- 한부모이주여성들은 '다문화'와 '한부모'라는 00 000을 지니고 있다.
- 000 000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나 집단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다.
- 0000는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다. 일반적으로 수소 원자의 핵은 단일한 양성자로 이루어졌지만, 0000의 원자핵은 한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 고등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를 00 000라고 한다.
- 현 교육부는 00 00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이므로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 00은 교원이 교육할 권리와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권위부터,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까지 포괄하는 말이다.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자 사회 구성원이 해당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000라고 한다.

오탈자를 찾아라

No. 68

	이	번		교	지	에		혹	시
있	을	지	도		모	를		오	탈
자	를		찾	아	주	세	요	!	
	오	탈	자	를		찾	아	주	신
분	개		1	만		원		상	당
의		스	타	백	스		기	프	티
콘	을		보	내	드	려	요	,	
	이	벤	트		기	한	과		참
여	방	식	은		앞	장	과		같
습	니	다	!						
	만	관	부	!					



용봉편집위원회 수습위원 모집

모집대상

글쓰기 및 출판에 관심 있는 분
글로벌 이슈를 알고 싶은 분
한 학기 이상 활동이 가능한 전남대생
국제시민들과 교류하고 싶은 분

모집인원

수습위원 0명

2023
09.01
-
09.30

모집절차

- [1차] 서류심사 (지원서 사전제출/QR코드 참조)
- [2차] 면접 (개별 연락)
- [3차] 최종 합격 발표 (개별 연락)

활동내용

- OT (9/13)
- 오픈 모임 (9/18)
- 미얀마 유학생 토크 콘서트
- NO JAPAN 넘어 한일관계 바라보기
- 신문 읽기 모임
- 환경 생태 세미나
- 인터뷰, 간담회, 심층보도
- 69호 교지 제작



문의사항
010.9440.7831
@yb_press



어느 날 밤 안기 코끼리가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밤 안의 코끼리' 무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현상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안이 공개처럼
 너무 거대하고, 대항하기 벅가운까 갇혀 눈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역사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기존 질서가 산산이 부서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코끼리를 보지 못한 채 외면 하신 자는 없으실까요?
 저희는 이번 교지를 통해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폭넓게 타개인과
 했습니다. 그리하여 <증거합>이 학우들의 비판이기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지를 펴냅니다. 이번 교지가 미성미수
 수 있도록 온 여정을 다한 용봉 사구들, 언제나 풍성한 선배들,
 그리고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3 여름, 중.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모 유명	앞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연예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지난 1년반 동안 저희가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러나 위기를	사람마다 대답은 다양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용봉>에선
'위기로' 보지 않고 승리는 더욱 위험하다고.	'평범한 시민들'을 시야에 두고 판단하려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말은 위기의식을	그리고 상상속 세계가 아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금'.
고지시키고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바로	여기'의 조건을 우선 고려하고자 합니다. 한 걸음을 옮기기
보고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자는 뜻이죠. 그 어느 시기보다	위해서는 우리가 마주한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 말은 새겨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는 프로그램을 증명시켜지 날기 위해서 말이죠.	증거합에서 이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용봉>식구들,
권리의 제약, 경기 침체, 정치의 퇴락, 보편적 가치의 추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도와주시는 선배님들, 흔쾌히 지도를
기존 지배질서의 동요 등 갖가지 위기에 해내고자 노력	말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아니라 국제적으로 동시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올립니다.

GOD의 '촛불 하나'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불을 붙이니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촛불도 켜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저에게 있어 용봉은 맨 처음 옆에 존재했던 초입니다

용봉은 처음 만난 불난, 인연대 앞에서 편지를 받던

그 순간을, 저는 아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첫번째 촛불이 켜는 순간으로

별것도 아닌 것에 쉽게 반하던 저는, 종종 들었던

사회문제에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맞는 일이야?"

그러나 그걸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현실인데."

혹은 "아,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답답했습니다. 저만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 같아서

하지만 용봉은 달렸습니다

제가 저번 문제를 함께 생각해내고, 이야기 나눠주고,...

단순히 한 가지 사실만 보고 단정적 결론에 도달한 제게
 새로운 사실과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세상은 점차 넓어졌습니다.

68호 교지<증거합>도,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우뚝 서있는 어두운 세상 같더라도,

이 교지, 우리 용봉이, 새로운 촛불을 켜 줄 수 있는

첫 불빛이 되길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 형로,

비밀학이던 처음 떨던 제게 글을 잘 써다며

어려움해준 담당자 겸 편집위원 중,

옆에서 함께 달려와준 수습위원 여러분,

그 외에도 도움된 많은 분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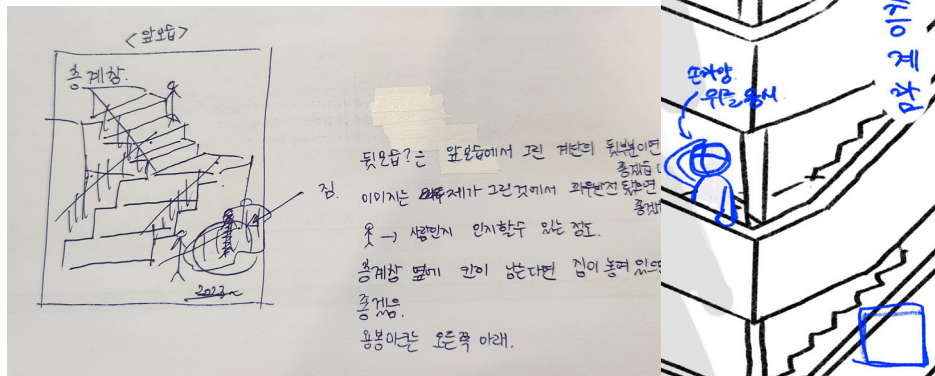
68호 교지를 읽어주신 독자들,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빛은 형광등 아래에서. 어은:0

'우연이 만든 필연', 내가 좋아하는 말이다.
 모든 일은 우연으로 시작하고,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필연으로 해석한다. 내
 가 용봉에 들어온 것도 우연이었다.
 2023년 6월 만해도 용봉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몰랐다. 2023년 여름방학 수습위원 모집 광고를
 우연히 보았고,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다. 그외 면접에서 통과를 한 것도, 용봉 사람들을
 만난 것도, 글의 주제를 선택한 것도 모두 우연이었다.
 2023년 8월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용봉을 나갈 수도 있었지만, 나가지 않
 았다. 글을 안 쓸 수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나름의 글을 완성했다.
 누군가가 계속 이 활동을 할 것이냐고 질문하면, 망설임 없이 "당연히 할 것이다"라고 답할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나에게 용봉이란 필연이다. 부디 이 필연이 오래가기를 바란다.

- 시윤 -



우선, 국내 이주민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으신 부모님과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본디 글은 혼자 쓰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줄 알았습니다. 사실 글쓰기뿐만 아니라 많은 일이 제게 그러하였습니다. 협력, 협동, 소통과 같은 가치를 강조하는 세상에 발맞춰가기 위해 애쓰고 살았습니만, 몸과 마음은 좀처럼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편집투기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은 그게 어찌하는 것인지 어렵듯이 알 듯합니다.

첫 사회과학 글쓰기였다 그나마 자신있는 주제였기에 욕심도 부담도 만만찮았습니다. 자기 글인 마냥 고만해 주고, 같이 글 쓰자고 불러내 주고, (좋은 글을 위해)적절히 쓴소리도 해주신 용봉 자기님들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송과 형호, 교지를 위해 많이 애써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선 더 그러셨겠지요. 덕분에 용봉교지 68호가 무사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빛을 발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많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글 쓰기 싫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나타나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 이 교지를 선물해 드리는 그날과 그 순간 '여러분'의 얼굴을 상상하며 힘냈습니다.

저는 멋진 글쟁이가 되고 싶습니다. 제 글에서 절로 향기가 나고 색깔이 눈 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면 좋겠어요. 말과 글, 모두 전달에 있어 중요한 매개체지요. 초등학생 댜 나름 둘 다 자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전 하나라도 잘하면 감지덕지입니다 ㄱ. 그런데도 제 의사를 전달하는 데엔 말보다 글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감성에 관한 글을 써와서 그런지 이번 68호 교지 작업이 꽤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훈련'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멋진 글쟁이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줄 알테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에 맞는 글쓰기를 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대학 시각에 「용봉」을 만난 건 정말정말 큰 기쁨이자 감사입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대학 생활입니다. 재미나게 살아봅시다. 그럼 다들 평안히!

정하

SAMSUNG

Galaxy Z Flip5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교지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이순 변호사 이 경 중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5층 Tel.(02)2088-2211 Fax.070-9443-6075 www.esoon-law.co.kr	법무법인 정언 대표변호사 심 찬 섭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409호(법조빌딩 정행) Tel.(031)565-3300 Fax.(031)565-3301	변호사최정재법률사무소 변호사 최 정 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3-8, 3층 Tel.(062)236-0025 Fax.(062)236-0027
대전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최 창 원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 603호 Tel.(042)489-9525~6 Fax.(042)489-9531	법무법인 행복 변호사 김 태 운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KETI빌딩 10층 Tel.(02)534-2200 Fax.(02)536-2212	법률사무소 청리 대표변호사 김 광 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4, 인곡타워 505호 (검찰청 정문 우측 특허법원 맞은 편) Tel.(042)471-9300 Fax.(042)471-9303 E-mail : kcdozo@hanmail.net
변호사신광식법률사무소 변호사 신 광 식 광주 동구 지산로 63, 2층(지산동, 중앙빌딩) Tel.(062)223-0231 Fax.(062)224-0234	법률사무소 상무 대표변호사 송 지 현 광주 서구 상무연화로 112 (치평동, 제갈량빌딩) 108,109호 Tel.(062)222-8825 Fax.(062)383-8825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 박 호 군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화평빌딩 5층 Tel.(02)3477-6900 Fax.(02)3477-5225 www.hippocra.com
법무법인 숨결로 부대표 변호사 송 진 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10층(교대역 6번출구) Tel.(02)2039-0471 Fax.(02)2039-0478 www.sumkyulaw.com	변호사 곽효승 법률사무소 변호사 곽 효 승 전남 순천시 왕지로 20 (왕지동) 2층 Tel.(061)725-5995 Fax.(061)725-5994	양한모이비인후과의원 대표원장 양 한 모 (의학75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327-13 Tel.(062)952-1300 Fax.(062)952-5566 http://www.yangent.net
변호사고영현법률사무소 변호사 고 영 현 광주 동구 밤실로 19 (지산동, 크라운빌딩) Tel.(062)229-3900 Fax.(062)229-3901	법무법인지명 대표변호사 이 승 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원화캐슬광고 C동 808호/809호 Tel.(031)360-4530 Fax.(031)360-4531 www.jimyunglaw.com	변호사 김정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경 은 광주 동구 지산로 63번길 3 (지산동) 3층 Tel.(062)234-0119 Fax.(062)234-5119

Yeollim (주)열림건축사사무소
Yeollim Architects & Engineers Group



건축설계 | 감리 | 종합건설 | 건설사업관리

대표 건축사 **박 운 천**
(APEC 건축사)
Mobile : 010-3891-5843
E-mail : wcpark44@naver.com

06225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37길 3 201호(역삼동 청우빌딩)
TEL : (02)565-8313~4 FAX : (02)565-8312

법무법인 산들



구성원 & 일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창 일**
(법학과 2000卒)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이지로빌딩 302호
Tel. 031-901-0072 / Fax. 031-901-2872
E-mail. jdkimci@gmail.com, jdkimci@naver.com

NF (주)자연과미래
친환경 유기농 병충해약제 전문기업



대표이사 **박 매 호**
010 8782 5524

사업분야

-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업자재 제품 개발
- 천연물질을 이용한 살충제, 살균제 개발
- 식물활성 효소제 및 기능성 식물영양제 개발
- 천연 해충기피제 및 탈취제(생활용품) 개발
- 친환경골프장(잔디, 수질정화) 제품 개발
- 기능성 농산물 생산지원 및 유통사업

기업부설 생물자원연구소 www.nfagro.co.kr
본사 및 공장 전남 곡성군 오산면 무곡로 359
T. 061 363 8488 F. 061 363 8489 E. mhpark@nfagro.co.kr



(주)도시창조



대표이사 **윤 건 호**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311
Tel. 062-385-0267 / Fax. 062-653-0977
E-mail. dosicj@nate.com

119 보다 빠르게 화재예방 미리미리

미리방재
www.mirichack.co.kr

미리24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 소방시설공사

미리24를 설치하면 비화재보(오동작)는 없습니다.
비화재보는 차단하고 1번의 진짜화재는 놓치지 않는

미리24
비화재보(오동작) 해결

대표이사 **장 필 준**
M. 010. 3372. 6982



040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65, 양경희관 501호 (망원동 386-2)
T. 1661-3911 F. 070-4325-9968 E. bigdream1@mirichack.co.kr

M.A.P Meister Architects Plant Engineers



금호타이어 미국공장

“국내 · 해외 산업시설 전문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이사 **정 형 무**
(건축학과 86卒)

주.MAP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0675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포로18길 19 (양재동)
Tel. 02-520-9300, 9311(직) / Fax. 02-520-9391
Website. www.mapgroup.co.kr



(전남대학교 총 동창회 부회장)
대표이사 **김재화**
■ 완도주류 판매공사 대표이사
■ 청해주류합명회사

| 會社 | Tel. 061) 552-2771~3
Fax. 061) 555-2774
| 自宅 | Tel. 061) 555-1339, 062) 673-1860
Mobile. 010-2065-1339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 **김철수**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림(양지병원)역 1번 출구
Tel.1877-8875 Fax.(02)879-1610 www.newyjh.com

법무법인(유한)맥

변호사 **신광섭**

광주 동구 동명로 106, 5층(지산동)
Tel.(062)674-9000 Fax.(062)674-9002

손철용 치과의원

원장 **손철용** (치의87졸)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18, 3층(두암동)
Tel.(062)264-4266, 2875 Fax.(062)267-6968

내 희망상가

나주이창 / 여수서교 / 영암용양

선착순☆수의계약

입점자 모집 중

1600-1004 LH

www.cnuhh.com



암치료와 더불어
치료를 주는 병원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이 치유 될 때까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곡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곡!

조식,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해나마트에서
바로 바로 확인까지!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선 가맹점 최대 적립 +
생활일착용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유예금)
누구에게나 알릴 수 있는 최대
피할 수 없는 재해에
하루 10만원(월1500만원)
한도 실손보험(재난)까지
월1만원으로 만가시 80%환급
(보험료/월) 공수익 2201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권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깁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최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신용자 차관
(사설) 및 근로자를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자동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림대로 107(광천동) TEL.062)362-8400-6 FAX.062)362-8407

영신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백신지점 062)529-5335-6	동래마로지점 062)531-774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월푸드(시정)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온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문트림지점 062)361-4472-4	유덕마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온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해나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

국제

여성

생태
교육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하집을 불태우는 여성들 - 재한 이란 여성 토크콘서트
한부모 이주여성, '한부모'와 '다문화'라는 이중 정체성으로 현실에 맞서다
장자 철학의 사이보그적 독해 - 페미니즘과 장애학 관점의 과학-기술 담론을 중심으로
전쟁은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읽고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과장과 축소 없이 진실을 보자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과 문제점 - 공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정부
학생에게는 '스승'이 필요하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침해,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일까